

# 《靈樞·邪氣藏府病形》에 대한 研究

전종호\* 금경수\*\* 박경\*\*\* 김남수\*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 ABSTRACT

I examined throughout where Sa Gi Gang Boo Byung Hyung(邪氣藏府病形) was shown. It is shown in many books, such as Young Chu(靈樞), Kab Eul Kyung(甲乙經), Nan Kyung(難經), Yu Kyung(類經), etc.

Sa Gi Gang Boo Byung Hyung got its name by how its contents pointed to the mechanism of getting harmed by Sa Gi(邪氣), and the forms of diseases which were led from five organs and six hollow viscera getting harmed by Sa Gi(邪氣).

Sa Gi Gang Boo Byung Hyung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which are divided altogether into nine sections.

The first chapter is on the mechanism of Sa Gi(邪氣)'s harming the five organs and the six hollow viscera. Going into details, it discusses that Sa Gi has got two different ways which are divided into Yum Yang(陰陽) to harm the organs and the hollow viscera. Next, it discusses how faces can endure the cold that well.

The second chapter is on the essences such as symptoms, face colors, shapes of pulse, and conditions on the interior part of the elbow. In the first section, it discusses how figures, colors and pulses relate together. In the second section, it discusses different diseases have different pulses and conditions on the interior part of the elbow. The third section is on forms of diseases in five organs and six hollow viscera.

The third chapter is on acupuncture. The first section is about acupuncturing six channels. The second is about acupuncture points which is compared to the sea by its function. The third is about the forms of diseases with discussing symptoms and acupuncture points. The fourth is about the essence of acupuncture.

The ten different pulses of each five organs, and the masses of five organs in Nan Kyung(難經), and Jang Bu Mak Jin Beob(臟腑脈診法) in Eu Hak Yib Moon(醫學入門) are based on 'The six different pulses of each five organs' which is shown in the third section, second chapter. Besid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udy and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well in doctoring such as inspecting, taking pulses and so on. Thus, I found Sa Gi Gang Boo Byung Hyung worth while to study.

But, Sa Gi Gang Boo Byung Hyung was written in ancient letters and was omitted in many parts, which led successive doctors to write different explanatory notes. Thus, I researched the exact meaning through successive explanatory notes.

Key Word : Sa Gi(邪氣), harming mechanism, Jang Bu Mak Jin Beob(臟腑脈診法), acupuncture Six channels.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전종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53-850-6847)

## I. 緒 論

「邪氣藏府病形」은 《靈樞》 第四에 編述되어 있고, 《甲乙經》<sup>1)</sup>에는 卷4 「病形脈診」 第 2上, 卷4 「病形脈診」 第 2下, 卷5 「針灸禁忌」 第 1下, 卷9 「邪在心膽及諸藏府發悲恐太息口苦不樂及驚」 第 5, 卷9 「脾胃大腸受病發腹脹滿腸中鳴短氣」 第 7, 卷9 「腎小腸受病發腹脹腰痛引背少腹控牽」 第 8, 卷9 「三焦膀胱受病發少腹腫不得小便」 第 9 등에, 《黃帝內經太素》<sup>2)</sup>에는 卷11 「府病合輸」, 卷15 「色脈尺診」, 卷15 「五藏脈診篇」, 卷27 「邪中篇」 등에, 《類經》<sup>3)</sup>에는 卷13 「疾病類(3·1) 邪之中人 陰陽有異」, 卷4 「藏象類20 首面耐寒 因於氣聚」, 卷13 「疾病類(3·2) 邪之中人 陰陽有異」, 卷5 「脈色類17 三診六變 與尺相應」, 卷6 「脈色類19 藏脈六變 病刺不同」, 卷20 「針刺

類24 六府之病 取之於合」 등에 나뉘어져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邪氣에 損傷되는 機轉과 五臟六腑가 邪氣에 損傷되어 나타나는 病의 形象을 證點적으로 論述하였기 때문에 篇名을 '邪氣臟腑病形'이라 하였다.<sup>4)</sup>

本篇의 내용은 三章 九節로 나뉘어진다.

第一章은 邪氣가 藏府를 損傷하는 機轉에 대하여 論하였다. 一節에서는 邪氣가 人體를 侵入할 때 陰陽의 區別이 있음을 論하였고, 二節에서는 頭面耐寒의 機轉에 대하여 論하였다.

第二章은 診斷의 요체가 되는 病症과 顏色·脈象·尺膚에 대하여 論하였다. 一節에서는 形·色·脈의 相應을 論하였고, 二節에서는 病形의 脈과 尺膚를 論하였으며, 三節에서는 五臟六脈의 病形을 論하였다.

第三章은 藏府病形의 刺法에 대하여 論하였다. 一節에서는 六脈의 主病과 刺針方法에 대하여 論하였고, 二節에서는 六府病의 合穴의 刺針에 대하여 論하였으며, 三節

1)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3)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7.

에서는 六府病形과 取穴에 대하여 論하였고, 四節에서는 刺法の 總結을 論하였다.

本篇의 第二章 三節에서 論한 五藏六脈의 病形은 一脈十變을 論한 《難經·十難》과 五臟積病을 論한 《難經·五十六難》과 《醫學入門》의 「臟腑六脈診法」의 根幹이 되고, 또한 本篇은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는 段階에서 부터 症狀과 診斷·治療과 正까지 망라되어 있으므로 學問的인 가치 뿐만 아니라 臨床的으로 매우 중요한 望診·尺診·脈診等의 原流를 理解하는데 매우 重要한 內容이다.

그러나 「邪氣藏府病形」은 古文으로 省略되어 있고 諸家의 註釋이 한결같지 않아서 어떤게 眞정한 註釋인지 모르므로 그 眞뜻을 理解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著者는 諸家의 註釋을 比較分析하여 眞確한 意味를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研究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篇의 內容을 理解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章節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

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論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景岳의 《類經》과 任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참조하여 內容에 따라 三章九節로 나누고 名稱을 달았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代化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들을 涉獵하여 調査하였다.

마. 較註는 「表二」의 13종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한 註를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은 脚註로 처리한 다음 末尾에 難解한 字句의 訓과 音을 달아 參考하기에 便利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本 研究에 사용한 각종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 등이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표1〉 校勘에 引用한 參考文獻 및 略稱

番號	校勘에 引用한 文獻	略稱	備考
1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周本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에서 引用
2	明萬曆二十九年醫叢正脈叢書本	統本	
3	明金陵尙義齋刊本半葉十行行二十字	金陵本	
4	黃帝內經太素	太素	
5	針灸甲乙經	甲乙	
6	備急千金要方	千金方	
7	脈經	脈經	
8	靈樞識	靈樞識	
9	醫學綱目	綱目	
10	靈樞經校釋	校釋	
11	類經	類經	
12	張馬合註本	合註本	
13	普濟方	普濟方	
14	中藏經	中藏經	

〈表2.〉 研究 資料

번호	註釋家	時代	註釋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 冰	唐(762)	黃帝內經靈樞	王
3	馬 蒔	明(1580)	靈樞注證發微	馬
4	張介賓	明(1624)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1672)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清(1756)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日(1808)	靈樞識	丹波
8	章 楠	清(1825)	靈素節注類編	章
9	山東省中醫研究所	(1962)	靈樞白話解	白話解
10	郭靄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12	郭仲夫 等	(1986)	黃帝內經講解	講解
13	李今庸	(1988)	新編黃帝內經綱目	綱目

### Ⅲ. 研究內容

#### 第一章 邪氣가 藏府를 損傷시키는 機轉

##### 第一節 邪氣의 侵入經路

###### 【原文】

黃帝 問於岐伯曰 邪氣之中<sup>(1)</sup>人也 奈何  
 岐伯이 答曰 邪氣之中人 是 高也<sup>(1)</sup>니이다  
 黃帝 曰 高下有度乎잇가  
 岐伯이 曰 身半以上者 是 邪中之也요 身半以下者 是 濕中之<sup>(2)</sup>也<sup>(1)</sup>라 故로 曰 邪之中人也<sup>(3)</sup> 無有常<sup>(4)</sup>하니 中于陰則溜<sup>(5)(2)</sup>于府요 中于陽則溜于經<sup>(2)</sup>이니이다  
 黃帝 曰 陰之與陽也 是 異名同類니 上下相會하고 經絡之相貫이 如環<sup>(3)</sup>無端<sup>(4)</sup>이라 邪之中人이 或中于陰하고 或中于陽하야 上下左右에 無有恒<sup>(5)</sup>常하니 其故는 何也<sup>(3)</sup>오  
 岐伯이 曰 諸陽之會는 皆在于面이요 中人也<sup>(6)</sup>는 方乘虛時커나 及新用力커나 若飲食汗出<sup>(7)</sup>하야 溲<sup>(6)</sup>理開而中于邪라 中于面 則下陽明이요 中于項 則下太陽이요 中于頰<sup>(7)</sup>則下少陽<sup>(4)</sup>이요 其中于膺<sup>(8)</sup>背<sup>(8)</sup>兩脅도 亦

中其經<sup>(9)</sup><sup>(5)</sup>이니이다

黃帝 曰 其中于陰은 奈何오

岐伯이 答曰 中于陰者 是 常<sup>(10)</sup>從臂<sup>(9)</sup>肱<sup>(10)</sup>始라 夫臂與肱은 其陰<sup>(11)</sup>皮薄하고 其肉<sup>(12)</sup>渫<sup>(11)</sup>澤<sup>(12)</sup> 故로 俱受于風이라도 獨傷其陰<sup>(6)</sup>이니이다

黃帝 曰 此故로 傷其藏乎잇가

岐伯이 答曰 身之中于風也에 不必動藏이라 故로 邪入于陰<sup>(13)</sup>經이나 則<sup>(14)</sup>藏氣實하면 邪氣入而不能客<sup>(15)</sup> 故로 還之於府라 故로 中陽<sup>(16)</sup>則溜<sup>(17)</sup>于經이요 中陰<sup>(18)</sup>則溜<sup>(17)</sup>于府<sup>(7)</sup>이니이다

黃帝 曰 邪之中人藏<sup>(19)</sup>은 奈何오

岐伯이 曰 愁憂恐懼<sup>(13)</sup>則傷心이라 形寒寒飲<sup>(20)</sup>則傷肺하니 以其兩寒相感하야 中外皆傷 故로 氣逆而上行<sup>(8)</sup>이라 有所墮<sup>(14)</sup>墜<sup>(15)</sup>하야 惡血留內커나 有所大怒하야 氣上而不下<sup>(21)</sup>하야 積于脅下<sup>(22)</sup> 則傷肝<sup>(9)</sup>이라 有所擊<sup>(16)</sup>仆<sup>(17)</sup>커나 若醉入房커나 汗出當風 則傷脾<sup>(10)</sup>라 有所用力舉重커나 若入房過度커나 汗出浴水면 則傷腎<sup>(11)</sup>하니이다

黃帝 曰 五臟之中風은 奈何오

岐伯이 曰 陰陽俱感<sup>(23)</sup>이면 邪乃得往<sup>(12)</sup>

이니이다

黃帝曰 善哉라

【較勘】

- 1) 高也: 《太素》卷二十七「邪中」에는 '也高'로 되어 있고, 《綱目》卷一「五臟類」를 보면 '高下也'로 되어 있다.
- 2) 濕中之也: 《素問》「五臟生成篇」의 王注에는 '濕之中也'로 되어 있다.
- 3) 邪之中人也: 《甲乙》卷四第二上에 '夫邪之中人也'로 되어 있다
- 4) 無有常: 《綱目》卷一「五臟類」에는 '無常'으로, 《太素》卷二十七「邪中」에는 '無有恒常'으로 되어 있다.
- 5) 溜: 《甲乙》卷四第二上和 《太素》卷二十七「邪中」에는 모두 '溜'로 되어 있다.
- 6) 中人也: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모두 '人之'로 되어 있다.
- 7) 若飲食汗出: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모두 '若熱飲食汗出'로 되어 있다.
- 8) 其中于膺背: 《語譯》에 "統本, 金陵本에는 '其中而膺背'로 되어 있고, 史崧《音釋》에는, 膺背가 어떤 本에는 肩背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9) 亦中其經: 《語譯》에 "史崧《音釋》에, 어떤 本에는 '下其經'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10) 常: 《合註本》에는 '嘗'으로 되어 있다.
- 11) 陰: 《語譯》에 孫鼎宜가 말하기를 "陰字는 衍文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였다.
- 12) 肉: 《綱目》卷二五「臟類」에는 '血'로 되어 있다.
- 13) 陰: 《語譯》에 "周本에는 '陰'字가 없

다."고 하였다.

- 14) 則: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모두 '其'로 되어 있다.
- 15) 容: 《甲乙》卷四第二上 에는 '容'으로 되어 있다.
- 16) 中陽: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모두 '陽中'으로 되어 있다.
- 17) 溜: 《甲乙》卷四第二上에는 '溜'로 되어 있다.
- 18) 中陰: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모두 '陰中'으로 되어 있다.
- 19) 邪之中人藏: 《太素》卷二十七「邪中」과 《甲乙》卷四第二上에는 모두 '邪之中藏者'로 되어 있다.
- 20) 寒飲: 《太素》卷二十七「邪中」에는 '飲寒'으로 되어 있다.
- 21) 氣上而不下: 《甲乙》卷四第二上和 《千金》卷十一第一에는 '氣上而不能下'로 되어 있다.
- 22) 積于脇下: 《千金》卷十一第一에는 '積于左脇下'로 되어 있다.
- 23) 陰陽俱感: 《甲乙經》卷四第二上에는 '陰陽俱相感'으로 되어 있다. 《語譯》에 "『靈樞略』에는 '陰陽俱盛感'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邪氣之中人高也'에서 '高也'에 대하여, 『太素』에는 '也高'로 되어 있고, 《綱目》에는 '高下也'로 되어 있다. 《語譯》에 "'高'字 아래에 '下'字가 빠진것 같으니, 아래 문장 '高下有度'의 문맥을 보면 마땅히 '下'字

를 더 넣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아래 文章의 岐伯의 對答에서도 身半以上과 身半以下가 나오므로 《綱目》과 《語譯》과 같이 ‘高下也’로 하는 것이 옳다.

‘無有常’은 《綱目》에는 ‘無常’으로, 『太素』에는 ‘無有恒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文章에 ‘無有恒常’이 句節이 나오고 또한 앞의 문장에서 ‘邪中之也’와 ‘濕中之也’가 4字이므로 文章의 흐름상 ‘無有恒常’이 옳다.

‘溜于府’가운데 ‘溜’에 대하여 《甲乙》과 《太素》에는 모두 ‘留’로 되어 있고, 馬蒔는 “溜는 ‘流’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本 文章을 보면 邪氣가 陰經에 侵入하면 府에 바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먼저 藏에 머물러도 藏氣가 實하면 藏으로 侵入하지 못하고 府로 흘러 가는 것이므로, ‘留’로 고친 것은 轉寫의 오류이고, ‘溜’와 ‘流’는 의미가 통하므로 ‘流’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思料된다.

‘若飲食汗出’에서 《太素》와 《甲乙》에는 모두 ‘若熱飲食汗出’로 되어 있다. 찬 음식을 먹어도 땀을 흘리는 食汗症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에는 身熱한 음식을 먹으면 땀을 흘리므로 ‘若熱飲食汗出’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若醉入房 汗出當風 傷脾’와 비슷한 말로 《難經·四十九難》에는 ‘飲食勞倦則傷脾’로 되어 있다. 《語譯》에서는 “‘若醉入房 汗出當風’ 8字를 상고하건대 아래 문장의 腎을 損傷하는 것을 잘못 引用한 것 같다고 하고, 《難經·四十九難》에서 말한 ‘飲食勞倦則傷脾’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難經·四十九難》에서 “憂愁思慮則傷心, 形寒飲冷則傷肺, 恚怒氣逆 上而不下則傷肝, 飲食勞倦則傷脾, 久坐濕地 強

力入水則傷腎”이라고 한 것은 本藏에서 본래 發病한 正經自病이고, 本文에서는 內傷과 外傷을 兼해야만 그 해당되는 藏이 傷한다고 하여 原因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語譯》과 같이 難經의 글을 억지로 끌어서 校勘할 필요는 없다고 思料된다.

‘邪乃得往’가운데 ‘往’에 대하여 《語譯》에서는 “《靈樞略》에는 ‘往’로 되어 있고, 상고하건대 ‘往’과 ‘住’는 글자의 형체가 誤認하기 쉽다. 住와 위의 문장의 怒·仆·度는 본래는 동일한 韻에 속하지 않지만 동일한 韻으로 사용한 것이다. 住는 駐의 古文으로 留止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註釋家들은 모두 邪氣가 侵入하는 것으로 보아서 ‘往’으로 보았다. 文章을 해석해 보면 邪氣가 머문다는 것보다 邪氣가 侵入한다는 것이 意味가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 [較註에 대한 考察]

‘身半以上者 邪中之也 身半以下者 濕中之也’에서 ‘邪’에 대하여

楊 등은 風·雨·寒·暑等 天의 邪氣로 보았고, 景岳 등은 단지 風邪로 보았다.

그러나 風邪는 모든 病의 우두머리가 되고 소화기관 전체를 보통 胃家라고 하며 六淫의 邪氣를 통칭하여 風이라고 하듯이 景岳 등은 대표적인 邪氣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見解차이는 없다고 思料된다.

‘諸陽之會 皆在於面 中人也 方乘虛時及新用力 若飲食汗出 腠理開而中於邪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에서 ‘陽明·太陽·少陽’에 대하여 楊 등은 手足經을 가지고 說明하였고, 景岳·章은 身體를 一周하는 脈은 足六經뿐이므로

단지 足經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陽明·太陽·少陽은 《傷寒論》의 六經 傳變과 같이 비록 足六經만이 頭部에서 足部에 까지 이르나 그 가운데는 手經이 생략되어 있으니 모든 註釋家의 견해차이는 없다.

‘憂愁恐懼則傷心 形寒寒飲則傷肺 以其兩寒相感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에서 ‘憂愁恐懼則傷心’에 대하여

《校釋》은 “心은 神을 간직하니 憂·愁·恐·懼하면 神을 傷하고 만약 다시 外邪에 感觸되면 心을 傷한다.”고 하고, 나머지 註釋家는 “憂·愁·恐·懼의 精神的인 動搖로 心臟이 損傷을 받는다.”고 하였다. 校釋은 《靈樞·本藏》의 “心이 작으면 心氣가 안정되어 外邪에 잘 損傷되지는 않으나 憂愁등의 精神的 동요에 손상되기 쉽고, 心이 크면 憂愁등의 精神的 동요에는 잘 손상되지 않으나 外邪에 잘 損傷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心이 外邪의 侵犯을 받는다고 보았고, 나머지 註釋家는 心은 君主之官으로 外邪의 侵犯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邪氣가 인체를 侵入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邪氣가 인체에 侵入하는 것은 人體의 高下에 따라 다릅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高下에 法度가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上半身은 邪氣가 侵入하고 下半身은 濕邪가 侵入하므로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는 것은 一定함이 없어서 陰으로 侵入하면 邪氣는 府로 가고, 陽으로 侵入하면 邪氣는 經으로 갑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陰과 陽이 명칭은

다르나 같은 종류이니 上下로 會合하고 經絡이 서로 貫通하는 것이 고리가 끊어 없는 것 같다. 邪氣가 인체를 侵入할 때에 혹은 陰으로 侵入하고 혹은 陽으로 侵入하기도 하여 上下左右로 一定함이 없으니 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岐伯이 대답하기를, 모든 陽의 經脈이 會合하는 곳은 모두 얼굴에 있고,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는 것은 必야호로 虛한 때를 타거나, 갑자기 힘을 썼거나, 飲食을 먹고 땀이 나서 腠理가 열려 邪氣가 侵入합니다. 邪氣가 얼굴에 침입하면 陽明經으로, 項部에 侵入하면 太陽經으로, 頰部에 侵入하면 少陽經으로 내려가고, 또한 그것이 膺背兩脇에 侵入한 것도 역시 그 해당되는 經으로 들어갑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그것이 陰으로 侵入한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陰으로 侵入하는 것은 항상 臂胛部로 부터 시작합니다. 무릎 臂와 胛部는 그 내측 皮膚가 얇고 그 肌肉도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內外側이 함께 風邪를 받더라도 오직 內側만 傷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이러므로 그 藏을 傷하게 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身體에 風邪가 侵入할 때에 반드시 藏을 搖動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邪氣가 陰經으로 들어갔으나 그 藏氣가 實하면 邪氣가 들어와도 侵入하지 못하고 府로 뒤돌아 갑니다. 그러므로 陽에 侵入하면 經에 머물고, 陰에 侵入하면 府에 머물게 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邪氣가 人體의 藏에 侵入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心을 傷합니다. 身體를 차게 하거나 찬 음

식을 먹으면 肺가 傷하니, 두 寒邪에 感觸되어 안팎이 모두 傷하기 때문에 氣가 거슬러 올라 갑니다. 떨어진 바가 있어 惡血이 內部에 머물거나 혹은 크게 怒하여 氣가 上行하여 내려오지 않아 脇下에 쌓이면 肝이 傷하게 됩니다. 쓰러진 바가 있거나 혹은 醉한 뒤에 入房하거나, 땀을 흘린 뒤에 바람을 쐬이면 脾가 傷하게 됩니다. 힘들여 무거운 것을 든 바가 있거나 혹은 入房이 過度하거나, 땀이 난 뒤에 沐浴을 하면 腎을 傷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藏에 風邪가 侵入하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陰陽이 모두 감촉되면 邪氣가 머물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 第二節 頭面部의 耐寒 機轉

### 【原文】

黃帝 問於岐伯曰 首面與身形也 屬骨連筋하고 同血合於氣耳<sup>1)</sup> [1] 라 天寒則裂<sup>(1)</sup>地凌<sup>(2)</sup>氷하니 其卒寒에 或手足 懈惰<sup>2)(3)</sup> 然而其面不衣<sup>3)(4)</sup>는 何也오

岐伯이 答曰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은 其血氣 皆上於面而走空竅<sup>(2)</sup> 하니 其精陽氣 上走於目而爲睛<sup>4)(5)</sup> [3] 이요 其別氣 走於耳<sup>(5)</sup> 而爲聽<sup>(4)</sup> 이요 其宗氣<sup>(6)</sup> 上出於鼻而爲臭요 其濁氣 出於胃<sup>(6)</sup> 하야 走唇舌而爲味<sup>(5)</sup> 요 其氣之津液이 皆上燻<sup>7)(7)</sup>于面 而皮<sup>(8)</sup>又厚하고 其肉堅 故로 天熱甚寒<sup>(9)</sup>이라도 不能勝之也<sup>(6)</sup> 니이다

### 【校勘】

1) 同血合於氣耳: 《太素·卷二十七 邪

中》에는 ‘同血合氣耳’로 되어 있다.

2) 懈惰: 《景岳全書·卷二十六 面病類》에는 ‘懈怠’로 되어 있다.

3) 其面不衣何也: 《太素·卷二十七 邪中》에는 ‘其面不衣 其故何也’로 되어 있고, 《準繩·面類》에는 ‘其面不裂何也’로 되어 있다.

4) 其精陽氣 上走於目而爲睛: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其精陽之氣 上走于目而爲睛’으로 되어 있고, 《太素·卷二十七 邪中》에는 ‘其精陽氣 上于目而爲精’으로 되어 있다.

5) 別氣走于耳: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別氣下走于耳’로 되어 있다.

6) 出於胃: 《甲乙·卷四第二上》에는 ‘下出於胃’로 되어 있다.

7) 燻: 《太素·卷二十七 邪中》과 《懸解》에는 ‘薰’으로, 《甲乙·卷四第二上》과 《靈樞識》, 《白話解》, 《語譯》에는 ‘熏’으로, 《類經》, 《合註本》, 《校釋》, 《綱目》에는 ‘燻’으로 되어 있다.

8) 而皮: 《太素·卷二十七 邪中》에는 ‘面皮’로 되어 있다.

9) 天熱甚寒: 《太素·卷二十七 邪中》에는 ‘熱甚寒’으로,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大熱甚寒’으로, 《合註本》에는 ‘天熱甚寒’으로, 《類經》, 《懸解》, 《靈樞識》, 《白話解》, 《語譯》, 《校釋》, 《綱目》에는 모두 ‘天氣甚寒’으로 되어 있다.

### 【考察】

#### [校勘에 대한 考察]

‘其面不衣 何也’는 《太素》에는 ‘其面不衣 其故何也’로 되어 있고, 《證治準繩》에는 ‘其面不裂 何也’로 되어 있다. 문장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其面不衣 其



故何也'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고, '其面不裂何也'는 앞의 '天寒則裂地' 文章과 對句가 되고 '裂'字를 얻어터지는것으로 보면 의미는 通한다.

'其氣之津液上燿于面'에서 '燿'은 《太素》와 《懸解》에는 '薰'으로, 《甲乙》과 《靈樞識》, 《白話解》, 《語譯》에는 '熏'으로, 《類經》, 《合註本》, 《校釋》, 《綱目》에는 '燻'으로 되어 있다. '燿'은 탄다(燃也)는 의미로 津液이 氣化되어 그 기운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燻'은 지진다(灼也)는 의미로 津液이 相火의 힘으로 熏蒸된다는 의미이므로 '燿'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天熱甚寒'은 《太素》에는 '熱甚寒'으로, 《甲乙》에는 '大熱甚寒'으로, 《合註本》에는 '天熱甚寒'으로, 《類經》, 《懸解》, 《靈樞識》, 《白話解》, 《語譯》, 《校釋》, 《綱目》에는 모두 '天氣甚寒'으로 되어 있다.

얼굴은 寒氣뿐만 아니라 熱氣도 잘 견디므로 太素등은 '熱甚寒'이라고 하였고, 類經이하의 앞에서 '天寒則裂地'라는 文章을 따라서 '天氣甚寒'으로 고친것 같다.

그러나 文章의 흐름을 보면 '天'은 날씨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天'이 맞고, '天氣甚寒'이라고 한 景岳本의 의미가 보다 확실하다.

#### [較註에 대한 考察]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 皆上於面而走空竅'에서 모든 註釋家들은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은 血氣가 모두 얼굴로 올라가서 각각의 空竅로 走行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味覺·視覺·聽覺·嗅覺은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의 감각영역에서 주로 담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血氣는 이러한 大腦皮質의 기능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其精陽氣 上走於目而爲睛'에서 '精陽氣'에 대하여

楊等은 精微로운 陽氣로 보았고, 張은 心腎神精의 氣로 보았다. 그러나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의 根本은 五臟六腑이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 五臟六腑의 氣는 모두 눈으로 注入된다고 하였으므로 단지 心腎의 氣만 언급한 張의 見解는 옳지 않다.

'其氣之津液 皆上燿于面 而皮又厚 其肉堅 故天熱甚寒 不能勝之也'에서

모든 註釋家들은 그 氣의 津液이 모두 위로 얼굴을 熏蒸하고 皮膚 또한 두텁고 肌肉도 堅固하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춥더라도 얼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現代醫學에서 "얼굴부위는 血液循環이 旺盛하고 또한 毛細血管들이 豊富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항상 적당한 溫度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얼굴로 모든 陽氣가 모이고 血隨氣行한다는 理論과 서로 一脈相通한다. 그러나 頭面耐寒의 機轉은 아직까지 定說이 없기 때문에 대뇌피질의 감각영역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頭面과 身形은 骨과 筋에 連屬되고 氣血이 모두 會合한다. 날씨가 추우면 땅이 갈라지고 얼음이 얼며 날씨가 갑자기 추울때에 혹 手足은 둔해지나 그 얼굴은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떠한 까닭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脈은 血氣가 모두 얼굴로 올라가서 空竅로 走行합니다. 그 陽氣의 精華가 위로 눈으로 走行하여 볼 수 있고, 그 別氣는 귀로 走行하여 들을 수 있고, 그 宗氣는 올라가 코로 나와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濁氣는 胃에서 나와 唇舌로 走行하여 맛을 알 수 있고, 그 氣의 津液이 모두 위로 얼굴을 熏蒸하고 皮膚 또한 두텁고 肌肉도 堅固하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춥더라도 얼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第二章 診斷의 要諦

### 第一節 形·色·脈의 相應

#### 【原文】

黃帝 曰邪之中人에 其病形은 何如오

岐伯이 曰虛邪<sup>(1)</sup>之中身也<sup>1)</sup>엔 洒淅<sup>2)(2)</sup>動形하고 正邪<sup>(3)</sup>之中人也엔 微하야 先見于色이나 不知于身<sup>3)</sup>하야 若有若無<sup>4)</sup>하고 若亡若存하야 有形無形하야 莫<sup>(4)</sup>知其情<sup>[1]</sup> 이니이다

黃帝 曰善哉라

黃帝 問於岐伯曰 余聞之컨대 見其色하야 知其病을 命曰明이요 按<sup>(5)</sup>其脈하야 知其病을 命曰神이요 問其病하야 知其處를 命曰工이라하니 余願聞<sup>(5)</sup>見而知之와 按而得之와 問而極<sup>(6)</sup>之는 爲之奈何<sup>[2]</sup> 오

岐伯이 答曰 夫色脈與尺之<sup>(6)</sup>相應也는 如桴鼓影響<sup>(7)</sup>之相應也니 不得相失也라 此는 亦本末根葉之出候<sup>7)</sup>也니 故로 根死則葉枯矣라 色脈形肉은 不得相失也라 故로 知一則爲工이요 知二則爲神이요 知三則神且明矣<sup>[3]</sup> 니이다

黃帝曰 願卒<sup>(8)</sup>聞之하노이다

岐伯이 答曰 色靑者는 其脈이 弦也<sup>(8)</sup>요

赤<sup>9)</sup>者는 其脈이 鉤<sup>(9)</sup>也<sup>8)</sup>요 黃者는 其脈이 代也요 白者는 其脈이 毛요 黑者는 其脈이 石<sup>10)</sup> <sup>[4]</sup>이라 見其色而不得其脈하야 反得其相勝<sup>(10)</sup>之脈則死矣요 得其<sup>(11)</sup>相生<sup>(11)</sup>之脈이면 則病已<sup>(12)</sup>矣 <sup>[5]</sup> 니이다

黃帝 問於岐伯曰 五藏之所生<sup>(12)</sup>의 變化之病形은 何如오

岐伯이 答曰 先<sup>(13)</sup>定其五色五脈之應하면 其病乃可別也니이다

#### 【校勘】

- 1) 虛邪之中身也: 《靈樞·卷十一 官能》에는 '邪氣之中人也'로 되어 있다.
- 2) 洒淅: 《太素·卷十五 色脈尺診》에는 '沍沂(혁기)'로 되어 있다.
- 3) 不知于身: 《靈樞·卷十一 官能》에는 '不知于其身'으로 되어 있다.
- 4) 若有若無: 《甲乙》 卷四第二上에는 이 四字가 없다.
- 5) 余願聞: 《太素·卷十五 色脈尺診》에는 '余願聞之'로 되어 있다.
- 6) 尺之: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尺之皮膚'로 되어 있다.
- 7) 出候: 《語譯》에 “‘出’은 마땅히 ‘殊’로 고쳐야 한다. 本文은 色脈尺膚의 診法을 언급하여서 診法가운데 殊候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8) 弦也, 鉤也: 《太素·卷十五 色脈尺診》과 《甲乙》 卷四第二上에는 “‘也’는 衍文이다.”고 하였다.
- 9) 赤者: 《太素·卷十五 色脈尺診》과 《甲乙·卷四第二上》에는 '色赤者'로 되어 있고, 아래도 같다.
- 10) 石: 《素問·五臟生成篇》의 王注에는 '堅'으로 되어 있다. 《太素·卷十五 色脈尺診》 楊注에 말하기를 “石은 어떤 本에는

堅이라 하니 堅역시 石이다.”라고 하였다.

- 11) 得其: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
- 12) 五藏之所生: 《語譯》에 “‘生’은 誤記인 것 같으니 ‘五藏之所主’로 고쳐야 한다. 古代의 篆字인 生과 主는 바뀌기 쉽다.”라고 하였다.
- 13) 先: 《太素·卷十五 色脈尺診》에는 ‘必先’으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虛邪之中身也’에서 ‘虛邪’에 대하여 《靈樞·官能》에는 ‘邪氣’로 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文章을 보면 ‘正邪’가 나와서 ‘虛邪’와 對句가 되고, 또한 ‘邪氣’라고 하면 五邪가 모두 포함되어 意味가 광범위하므로 여기서는 ‘虛邪’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見其色 知其病 命曰明 按其脈 知其病 命曰神 問其病 知其處 命曰工’에서

본 文章에서 말한 明·神·工과 《難經·六十一難》의 神·聖·工·巧와는 분류 방법이 다르다. 《難經·六十一難》에는 望·聞·問·切의 四診가운데, 望診하여 病을 아는 것을 神이라 하고, 聞診하여 病을 아는 것을 聖이라 하며, 問診하여 아는 것을 工이라 하고, 切脈하여 아는 것을 巧라고 하였고, 本文에서는 아래의 문장을 보면 色脈形肉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이중에 한가지를 알면 工이고, 두가지를 알면 神이고, 세가지를 알면 神이고 또한 明醫라고 하였다. 《難經·六十一難》은 本文에 근거

하여 세분해서 확대한 것으로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邪氣가 人體에 侵入할 때에 그 病의 形狀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虛邪가 身體에 侵入할 때에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추워서 온몸을 떨고, 正邪가 人體에 侵入할 때에는 病勢가 微弱하여 먼저 顏色에 나타나나 身體는 느낄 수 없어서 顏色·脈搏·尺膚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病情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건대 顏色을 보아서 그 病을 아는 것을 ‘明’, 그 脈을 짚어서 病을 아는 것을 ‘神’, 그 病의 증상을 물어서 그 病의 난 곳을 아는 것을 ‘工’이라 하니, 내가 色을 보고 病을 아는 것과 脈을 짚어 病을 아는 것과 病을 물어서 病의 所在를 다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듣기를 원합니다.

岐伯이 答하기를, 무릇 色·脈·尺膚가 相應하는 것은 북을 치면 소리가 울리듯 相應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根本과 末梢, 뿌리와 잎새 關係에서 徵候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므로 뿌리가 죽으면 잎이 마르는 것입니다. 色·脈·形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알면 工이고, 두 가지를 알면 神이며, 세 가지를 다 알면 神이며 또한 明醫이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願컨데 그것에 관하여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對答하기를, 顏色이 靑色이면 그 脈은 弦, 赤色은 그 脈이 鉤, 黃色은 그 脈

이 代, 白色은 그 脈이 毛, 黑色은 그 脈이 石으로 나타납니다. 그 色은 나타났으나 그 脈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相勝하는 脈이 나타나면 죽고, 相生하는 脈이 나타나면 病이 낫습니다.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五藏에서 發生한 疾病의 變化하는 病形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答하기를, 먼저 五色과 五脈이 相應하는 것을 決定하면 그 病을 嘔別할 수 있습니다.

## 第二節 脈과 尺膚

### 【原文】

黃帝曰 色脈已定에 別之奈何

岐伯이 曰調<sup>(1)</sup>其脈<sup>(1)</sup>之緩急小大滑濇 而病變<sup>(2)</sup>定矣<sup>(1)</sup> 니이다

黃帝曰 調之奈何

岐伯이 答曰 脈急<sup>(2)</sup>者는 尺之皮膚도 亦急하고 脈緩者는 尺之皮膚도 亦緩하며 脈小<sup>(3)</sup>者는 尺之皮膚도 亦減而少氣<sup>(3)</sup>하고 脈大者는 尺之皮膚도 亦賁<sup>(4)</sup>而起<sup>(4)</sup>하며 脈滑者는 尺之皮膚도 亦滑하고 脈濇者는 尺之皮膚도 亦澁하니 凡此變者<sup>(5)</sup>는 有微有甚<sup>(2)</sup> 이라

故로 善調尺者는 不待<sup>(5)</sup>於寸<sup>(6)</sup>하고 善調脈者는 不待於色이라

能參<sup>(6)</sup>合而行之者는 可以爲上工이니 上工은 十全<sup>(7)</sup>九<sup>(7)</sup>요 行二者는 爲中工이니 中工은 十全七<sup>(8)</sup>이요 行一者는 爲下工이니 下工은 十全六<sup>(9)</sup>이니이다

### 【校勘】

- 1) 調其脈: 《脈經·卷四第一》에는 ‘審其尺’으로 되어 있다.
- 2) 病變: 《甲乙·卷四第二上》에는 ‘病形’

으로 되어 있다.

- 3) 亦減而少氣: 《脈經·卷四第一》에도 ‘亦減而少’로 되어 있다.
- 4) 亦賁而起: 《甲乙·卷四第二上》에는 ‘亦大’로 되어 있다.
- 5) 凡此變者: 《太素·卷十五 色脈尺診》과 《脈經·卷四第一》에는 ‘凡此六變者’로 되어 있다.
- 6) 不待於寸: 《太素·卷十五 色脈尺診》에는 ‘不待於寸口’로 되어 있다.
- 7) 上工十全九: 《甲乙·卷四 第二》에는 ‘十全其九’로 되어 있고, 아래의 中工, 下工도 같다.
- 8) 十全七: 《千金·卷二十五 診氣色法》에는 ‘十全六’으로 되어 있다.
- 9) 十全六: 《千金·卷二十五 診氣色法》에는 ‘十全三’으로 되어 있다.

###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亦減而少氣’에서 ‘氣’는 『語譯』에 “‘氣’字는 衍文이고, 여기서는 尺膚를 論하였고 ‘少氣’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脈經》에도 ‘氣’字가 없다.

‘少氣’는 들여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적으며 微弱하게 呼吸하는 것으로 대개 中氣가 不足하거나 肺腎이 虛하여 생기는 症狀으로서, 아래 문장을 살펴봐도 여기서는 寸口脈과 尺膚의 關係를 論하였고 症狀를 언급한 곳이 하나도 없으므로 ‘氣’字는 衍文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 [較註에 대한 考察]

‘調其脈之緩·急·小·大·滑·澁 而病變定矣’에서 ‘調其脈’에 대하여 太素등은 寸口脈를 調査한다고 註釋하였

고, 馬는 尺膚의 緩·急·小·大·滑·澁과 寸口脈이 같은 것을 調査한다고 註釋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文章을 보면 寸口脈과 尺膚가 相應하는 것을 論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馬의 註釋이 보다 확실하다고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色·脈이 이미 決定해졌으면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脈의 緩·急·小·大·滑·澁을 조사하여 病變을 定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調査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脈이 急하면 尺部の 皮膚도 팽팽하고, 脈이 緩하면 尺膚도 늘어지며, 脈이 小하면 尺膚도 減縮되고 少氣가 발생하며, 脈이 大하면 尺膚도 크게 隆起하며, 脈이 滑하면 尺膚도 매끄럽고, 脈이 澁하면 尺膚도 꺼칠하니 무릇 이러한 변화는 顯著하고 顯著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尺膚를 잘 진찰하는 사람은 寸口の 診脈이 필요없고, 脈象을 잘 진찰하는 사람은 望色의 診察이 필요없습니다. 이 세가지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治療를 施行하는 사람은 上工이 될 수 있으니 上工은 열 가운데 아홉을 고치고, 두가지를 施行하는 사람은 中工이 되니 中工은 열 가운데 일곱을 고치며, 한가지를 施行하는 사람은 下工이 되니 下工은 열 가운데 여섯을 고칠 수 있습니다.

第三節 六脈의 病形

【原文】

黃帝曰 請問컨대 脈之緩急小大滑澁之病形은 何如오

岐伯이 曰臣請言五藏之病變<sup>1)</sup>也니이다

心脈急甚<sup>1)</sup>者는 爲癰瘕<sup>2)(2)</sup>이요 微<sup>3)</sup>急은 爲心痛引背하고 食不下<sup>1)</sup>라 緩甚是 爲狂笑<sup>3)</sup>요 微緩은 爲伏梁<sup>4)</sup>이 在心下하고 上下行하여 時唾血<sup>4)</sup> [2] 이라 大甚是 爲喉呿<sup>5)(5)</sup>요 微大는 爲心痺<sup>6)</sup>引背하며 善淚<sup>6)</sup>出<sup>7)</sup> [3] 이라 小甚是 爲善噦<sup>8)(7)</sup>이요 微小는 爲消羸<sup>9)</sup> [4] 이라 滑甚是 爲善渴이요 微滑은 爲心疝引臍하고 小腹鳴<sup>10)</sup> [5] 이라 澁甚是 爲瘕<sup>8)</sup>이요 微澁은 爲血溢<sup>9)</sup> 維厥<sup>11)(10)</sup> 耳鳴 顛疾<sup>12)(11)</sup> [6] 이라

肺脈急甚<sup>13)</sup>은 爲顛疾이요 微急은 爲肺寒熱하고 怠惰<sup>14)</sup> 欬唾血하고 引腰背胸<sup>15)</sup>하고 若鼻息肉不通<sup>16)</sup> [7] 이라 緩甚是 爲多汗이요 微緩은 痿<sup>12)</sup> 痺<sup>13)</sup> 偏風<sup>17)(14)</sup>하고 頭以下汗出不可止<sup>18)</sup> [8] 라 大甚是 爲脛<sup>15)</sup>腫이요 微大<sup>19)</sup>는 爲肺痺 引胸背하고 起惡日光<sup>20)</sup> [9] 이라 小甚是 爲泄<sup>21)</sup>이요 微小는 爲消羸<sup>16)</sup> [10] 이라 滑甚<sup>22)</sup>은 爲息賁上氣요 微滑은 爲上下出血<sup>11)</sup> 이라 澁甚是 爲嘔<sup>23)</sup>血이요 微澁은 爲鼠瘻<sup>24)(17)</sup>在頸支腋<sup>25)</sup>之間하고 下不勝其上하여 其應善痿<sup>18)</sup>矣<sup>26)</sup> [12] 라

肝脈急甚者는 爲惡言<sup>27)</sup>이요 微急은 爲肥氣在脅下<sup>28)</sup>하여 若覆<sup>19)</sup>杯<sup>29)(20)</sup> [13] 라 緩甚是 爲善嘔<sup>30)</sup>요 微緩은 爲水瘦<sup>31)(21)</sup>痺也<sup>14)</sup>라 大甚<sup>32)</sup>은 爲內癰 善嘔衄<sup>33)(22)</sup>이요 微大는 爲肝痺<sup>34)</sup>하고 陰縮<sup>35)</sup>하고 欬引小腹<sup>15)</sup>이라 小甚是 爲多飲이요 微小는 爲消羸<sup>16)</sup> [1] 이라 滑甚是 爲癰疽<sup>36)(23)</sup>이요 微滑은 爲遺溺<sup>24)</sup> [17] 라 澁甚是 爲溢飲<sup>37)(25)</sup>이요 微澁은 爲癰攣筋痺<sup>38)</sup> [18] 라

脾脈急甚是 爲癰瘕이요 微急은 爲膈中<sup>39)</sup>하여 食飲<sup>40)</sup>入而還出하고 後沃沫<sup>26)</sup> [19] 이라 緩甚是 爲痿癈<sup>41)(27)</sup>이요 微緩은 爲風痿

하야 四肢不用<sup>42)</sup>이나 心慧<sup>(28)</sup>然하야 若無病<sup>[20]</sup>이라 大甚是 爲擊仆요 微大는 爲疝氣<sup>43)</sup>하야 腹裏<sup>44)</sup>大하니 膿血在腸胃之外<sup>[21]</sup>라 小甚是 爲寒熱이요 微小는 爲消痺<sup>[22]</sup>이라 滑甚是 爲癢癢<sup>45)(29)</sup>이요 微滑은 爲蟲毒蝮<sup>(30)</sup>蝎<sup>(31)</sup>腹熱<sup>46)</sup> [23] 이라 瀦甚是 爲腸潰<sup>47)</sup>요 微瀦은 爲內瘡<sup>48)</sup>하야 多<sup>49)</sup>下膿血<sup>[24]</sup>이라

腎脈急甚是 爲骨癩疾<sup>50)</sup>이요 微急은 爲沈厥 奔豚<sup>51)(32)</sup> 足不收<sup>52)</sup>不得前後<sup>53)</sup> [25] 라 緩甚是 爲折<sup>(33)</sup>脊이요 微緩은 爲洞<sup>54)</sup>이니 洞者는 食不化하야 下噎<sup>55)(34)</sup>逐出<sup>[26]</sup>이라 大甚是 爲陰痿요 微大는 爲石水<sup>(35)</sup>니 起臍已下至小腹하야 腫<sup>(36)</sup>腫然<sup>56)</sup>하며 上至胃腕<sup>57)</sup>이면 死不治<sup>[27]</sup>라 小甚是 爲洞泄<sup>(37)</sup>이요 微小는 爲消痺<sup>58)</sup> [28] 이라 滑甚是 爲癢癢<sup>59)</sup>요 微滑은 爲骨痿<sup>(38)</sup>하야 坐不能起하고 起則目無所見<sup>60)</sup> [29] 이라 瀦甚是 爲大癰<sup>61)</sup>이요 微瀦은 爲不月 沈痔<sup>62)</sup> [30] 니이다

【校勘】

- 1) 病變: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變病’으로 되어 있다.
- 2) 甚是爲癩瘖: 《脈經·卷三第二》와 《甲乙·卷四第二》와 《千金·卷十三第一》에는 ‘甚是爲癩瘖’으로 되어 있고, 《太素》에는 ‘甚是爲癩’로 되어 있다.
- 3) 緩甚是爲狂笑: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其脈急甚 則發狂笑’로 되어 있다.
- 4) 上下行 時唾血: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上下 時唾血’로, 《甲乙·卷四第二上》과 《千金·卷十三第一》에는 ‘上下行 有時唾血’로 되어 있다.
- 5) 呿: 《脈經》卷三第二에는 ‘介’로,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閉’로,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呿呿’로 되어 있다.
- 6) 心痺: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心痛’

으로 되어 있다.

- 7) 善淚出: 《甲乙·卷四第二上》에는 ‘善淚’로 되어 있다.
- 8) 善噦: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噦’로 되어 있다.
- 9) 爲消痺: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則笑消痺’으로 되어 있다.
- 10) 小腹鳴: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腹鳴’으로,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少腹鳴’으로 되어 있다.
- 11) 維厥: 《中臟經·卷上第二十四》에는 ‘手足厥’로 되어 있다.
- 12) 顛疾: 《太素·卷十五 五臟脈診》, 《甲乙·卷四第二上》, 《千金·卷十三第一》, 《普濟方·卷十六 心臟門總論》에는 ‘癩疾’로 되어 있다.
- 13) 肺脈急甚: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肺脈急’으로 되어 있다.
- 14) 怠惰: 《千金·卷十七第一》에는 ‘怠墮’로 되어 있다.
- 15) 引腰背痛: 《普濟方·卷二十六 肺臟門總論》에는 ‘痛引腰背痛’으로 되어 있다.
- 16) 若鼻息肉不通: 《脈經·卷三第二》에는 ‘苦鼻瘕肉不通’으로,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若鼻宿肉不通’으로 되어 있다.
- 17) 痿癭 偏風: 《太素·卷十五 五臟脈診》과 《脈經·卷三第二》에는 ‘痿 偏風’으로, 《太素》와 《千金·卷十七第一》에는 ‘痿癭 漏風’으로, 《普濟方·卷二十六 肺臟門總論》에는 ‘痿癭 風’으로 되어 있다.
- 18) 汗出不可止: 《甲乙·卷四第二上》과 《太素》의 楊注에는 ‘汗出不止’로 되어 있다.

- 19) 微大: 《脈經·卷三第二》에는 ‘微汗’으로 되어 있다.
- 20) 起惡日光: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起惡日’로, 『脈經』 卷三第二와 《千金·卷十七第一》에는 모두 ‘起腰內’로 되어 있다.
- 21) 爲泄: 《脈經·卷三第二》와 《千金·卷十七第一》에는 ‘爲飧’으로 되어 있다.
- 22) 滑甚: 《語譯》에 “張注本에는 ‘滑盛’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23) 嘔: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歐’로 되어 있다.
- 24) 瘦: 《甲乙·卷四第二上較註》에 “瘦는 어떤 본에는 漏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25) 腋: 《脈經·卷三第二》와 《千金·卷十七第一》에는 모두 ‘掖’으로 되어 있다.
- 26) 其應善痿矣: 《甲乙·卷四第二上》에는 ‘甚應善痿矣’으로,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其應能喜痿’으로 되어 있다.
- 27) 急甚者 爲惡言: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急甚爲惡言’으로 되어 있다. 《甲乙·卷四第二上》較註에는 “惡言은 어떤 본에는 忘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28) 微急 爲肥氣在脇下: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微急 氣在胸脇下’로 되어 있고, 《病源·卷十九 積聚候》에는 모두 ‘微急 爲肥氣在左下’로 되어 있다.
- 29) 覆杯: 《千金·卷十一第一》에는 ‘覆杯’로 되어 있다.
- 30) 善嘔: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嘔逆’으로 되어 있다.
- 31) 水瘦: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瘦’字가 없다.
- 32) 大甚: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火急’으로 되어 있다.
- 33) 善口衄: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吐血’로 되어 있다.
- 34) 肝痺: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筋痺’로 되어 있다.
- 35) 陰縮: 《脈經·卷三第一》과 《千金·卷十七第一》에는 모두 ‘縮’으로 되어 있다.
- 36) 癩疝: 《太素·卷十五 五臟脈診》, 《脈經·卷三第一》, 《千金·卷十七第一》,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모두 ‘癩疝’으로 되어 있고, 《甲乙·卷四第二上》에는 ‘癩疝’으로 되어 있다.
- 37) 溢飲: 《脈經·卷三第一》과 《千金·卷十一第一》에는 모두 ‘淡飲’으로, 《中藏經·卷上第二十二》에는 ‘流飲’로 되어 있다.
- 38) 瘦學筋痺: 《太素·卷十五 五臟脈診》에는 ‘瘦學筋’으로, 《脈經·卷三第一》과 《甲乙·卷四第二上》에는 ‘瘦瘰學筋’으로 되어 있다.
- 39) 爲膈中: 《太素·卷十五 五臟脈診》, 《甲乙·卷四第二上》, 《千金·卷十五第一》에는 모두 ‘爲膈中’으로, 《脈經·卷三第三》에는 ‘爲脾中滿’으로,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는 ‘則胸膈中不利’로 되어 있다.
- 40) 食飲: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는 ‘食’으로 되어 있다.
- 41) 緩甚爲痿厥: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는 ‘緩盛爲痿厥’로 되어 있다.
- 42) 四肢不用: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는 ‘四肢不收’로 되어 있다.
- 43) 疝氣: 《脈經·卷三第三》에는 ‘痞氣’로 되어 있다. 丹波元簡은 “다른 四經은 積名을 例舉하였으나 여기서만 疝氣라 하였으니 가히 의심된다.”고 하였고,

- 《脈經》에서 ‘痞氣’라 한것이 이것이다. 《難經 · 五十六難》에 “脾積의 病名을 痞氣라 하니, 胃脘部에 있고 크기가 쟁반을 덮어놓은 것 같고,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四肢에 힘이 없어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黃疸이 發生하며 飲食은 잘 먹으나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千金 · 卷十五第一》, 《中藏經 · 卷上第二十六》, 《普濟方 · 卷二十 脾臟門總論》에는 ‘脾痞氣’라고 되어 있다.
- 44) 腹裏: 《脈經 · 卷三第三》, 《千金 · 卷十五第一》, 《普濟方 · 卷二十 脾臟門總論》에는 모두 ‘腹裏’로 되어 있다.
- 45) 癢癢: 《中藏經 · 卷上第二十六》에는 ‘顏疔’으로 되어 있다.
- 46) 蝟蝎腹熱: 《脈經 · 卷三第三》, 《千金 · 卷十五第一》, 《普濟方 · 卷二十 脾臟門總論》에는 모두 ‘蝟腸鳴熱’로 되어 있고, 《中藏經 · 卷上第二十六》에는 ‘腸鳴中熱’로 되어 있다.
- 47) 腸潰: 《脈經 · 卷三第三》에는 ‘內頰’로 되어 있다.
- 48) 內瘻: 《太素 · 卷十五 五臟脈診》, 《脈經 · 卷三第三》, 《甲乙 · 卷四第二上》, 《千金 · 卷十五第一》, 《中藏經 · 卷上第二十六》에는 모두 ‘內潰’로 되어 있다.
- 49) 多下膿血: 《中藏經 · 卷上第二十六》에는 ‘下膿血’로 되어 있다.
- 50) 骨癩疾: 《脈經 · 卷三第五》, 《甲乙 · 卷四第二下》, 《千金 · 卷十九第一》, 《普濟方 · 卷二十九 腎臟門總論》에는 모두 ‘骨痿癩疾’로,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骨痿癩疾’로 되어 있다.
- 51) 奔豚: 《太素 · 卷十五 五臟脈診》에는 ‘奔豚’二字가 없다. 《病源 · 卷十三 賁豚氣候》에는 모두 ‘賁豚’으로 되어 있다.
- 52) 足不收: 《病源 · 卷十三 賁豚氣候》에는 ‘其足不收’로 되어 있다.
- 53) 不得前後: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이 四字가 없다.
- 54) 洞: 《甲乙 · 卷四第二下》와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洞泄’로, 《脈經 · 卷三第五》와 《千金 · 卷十九第一》에는 ‘洞下’로 되어 있다.
- 55) 下噎: 《脈經 · 卷三第五》, 《千金 · 卷十九第一》,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모두 ‘入咽’으로 되어 있다.
- 56) 起臍已下至小腹 腫腫然: 《太素 · 卷十五 五臟脈診》, 《甲乙 · 卷四第二下》, 《病源 · 卷十三 賁豚氣候》에는 모두 ‘起臍以下至小腹 垂垂然’으로, 《脈經 · 卷三第三》과 《千金 · 卷十九第一》에는 ‘起臍以下至小腹腫 垂垂然’으로,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起臍以下至小腹氣腫 唾唾然’으로 되어 있다.
- 57) 上至胃脘: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而上至胃脘者’로 되어 있다.
- 58) 消痺: 《普濟方 · 卷二十九 腎臟門總論》에는 ‘消痺’로 되어 있다.
- 59) 癰瘻: 《甲乙 · 卷四第二下》에는 ‘癰癩’로 되어 있다.
- 60) 起則目無所見: 《太素 · 卷十五 五臟脈診》에는 ‘起目無所見’으로, 《脈經 · 卷三第五》와 《千金 · 卷十九第一》에는 ‘起則目無所見視見黑花’로, 《甲乙 · 卷四第二下》에는 ‘起則目無所見視黑丸’으로,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起則目無所見目視見花’로 되어 있다.
- 61) 大癰: 《中藏經 · 卷中第三十》에는 ‘大壅塞’으로 되어 있다.
- 62) 微澁 爲不月沈痔: 《脈經 · 卷三第五》와 《千金 · 卷十九第一》에는 모두 ‘微



澁爲不月水沈痔’로, 《中藏經·卷中第三十》에는 ‘微澁有不月疾痔’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大甚爲 喉介’에서 ‘介’에 대하여 《脈經》에는 ‘介’로, 《中藏經》에는 ‘閉’로, 《甲乙》에는 ‘介介’로 되어 있다. 《語譯》에는 “《後漢書·孔融傳》賢注에 “介는 蒂芥와 같다.”고 하였고, 《方言》卷二에 “蒂芥는 刺梗이다.”고 하였으며, ‘喉介’는 喉中에 예리한 物體가 막은 것을 말하니, 즉 《中藏經》에서 ‘閉’라고 한 것은 後人들이 釋文을 따라 原文을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語譯》의 見解대로 ‘喉介’는 患者 본인이 목구멍에 무언가 예리한 物體가 막힌 듯한 感覺이지 실제로 막힌것은 아니므로 《中藏經》에서 ‘閉’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若鼻息肉不通’에서 ‘若’이 《脈經》에는 ‘苦’로 되어 있다. 文章의 意味를 보면 鼻中에 息肉이 생겨서 通하지 못하여 괴로워한다는 意味이므로 ‘若’은 괴로워한다는 意味의 ‘苦’의 誤字인것 같다.

‘腹裏大 膿血在腸胃之外’에서 ‘腹裏’가 《脈經》,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腹裏’로 되어 있다. 丹波元簡은 “《素問·腹中論》에는, 伏梁은 腹部를 싸고 있는 많은 膿血이 腸胃의 바깥에 있다(伏梁裏大膿血在腸胃之外)라고 하고, 여기서는 痞氣로 腹部를 싸고 있는 많은 膿血이 腸胃의 바깥에 있다(此則痞氣而裏大膿血在腸胃之外也).”라고 하여 ‘腹裏’를 ‘腹裏’로 보았다. 만약 ‘腹裏’로 본다면 原文을 ‘腹裏大 膿血在腸胃之外’라고 하는것이 옳고, ‘腹裏’로 본

다면 ‘腹裏大膿血在腸胃之外’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두가지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著者는 일단 丹波의 見解를 따르고 是非는 後學들의 더 깊은 研究를 기다린다.

‘微澁爲 內潰’에서 ‘內潰’는 《太素》, 《脈經》, 《甲乙》, 《千金》, 《中藏經》에는 모두 ‘內潰’로 되어 있다. 글자만으로 보면 本文에서는 脾脈이 微澁하면 안으로 潰瘍이 되어 많은 膿血을 瀉下한다고 하여 ‘內潰’로 보는 것이 옳지만, 《語譯》에 周學海의 말을 引用하여 “‘潰’와 ‘潰’ 2字는 《脈經》에서는 混用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心脈急甚者 爲瘵瘵 微急 爲心痛引背 食不下’에서 ‘瘵瘵’이 생기는 原因에 대하여 楊등은 急甚脈은 寒邪를 주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馬등은 肝邪勝心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楊등은 急脈을 緊脈으로 보고, 馬등은 急脈을 弦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澁甚 爲嘔血 微澁 爲鼠瘻在頸支腋之間 下不勝其上 其應善瘵矣’에서 ‘其應善瘵矣’에 대하여 楊등은 “下部가 虛하여 上部가 實한 것을 이기지 못하여 金實이 木을 剋하게 되니 味에 있어서는 酸味를 좋아한다”라고 하였으나 文章의 뜻대로 解析하여도 意味가 통하지 않는다.

‘肝脈急甚者 爲惡言 微急 爲肥氣在脅下 若覆杯’에서 ‘惡言’에 대하여 楊등은 나쁜말을 한다고 하고, 校釋에서는 말듣기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肝脈이 急甚한 것은 本經自病이므로 景岳의 見解대로 肝脈이

急甚한 것은 肝氣가 강한 것이니, 肝氣가 강한 사람은 怒하는 것이 많고 기뻐하는 것이 적으므로 ‘惡言’을 나쁜말을 하는 것으로 解析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脾脈急甚 爲癰瘕 微急 爲膈中 食飲入而還出 後沃沫’에서 ‘後沃沫’에 대하여 楊·馬·白話解·校釋·語譯에서는 大便으로 거품이 나온다고 보고, 景岳·張·黃·章은 입으로 거품이 나온다고 보았으나, 膈中은 《靈樞·本輸》에서는 “胸膈이 通하지 않는 것이다(胸中膈塞不通也).”라고 하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이를 상고하면 噎塞과 反胃症이다(按此則 所謂噎塞反胃).”라고 하여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幽門狹窄의 類로 膈中은 景岳等の 見解대로 飲食이 들어가면 바로 吐하고 吐한 후에 다시 涎沫을 吐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

‘緩甚 爲折脊 微緩 爲洞 洞者 食不化 下噏逐出’에서 ‘下噏逐出’에 대하여

楊등은 음식을 먹으면 다시 입으로 吐出된다고 보았고, 校釋은 大便으로 排泄되고 입으로 吐出된다고 보았으며, 白話解는 消化되기 전에 大便으로 排出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東洋醫學大辭典》에 “洞은 嘔吐이다.”라고 하였으므로, 楊등의 견해가 옳다.

本節을 總括하면 《難經·十難》에서는 여기에 근거하여 “한 臟에 반영되는 脈象에 10가지의 變態가 있다 하니 그 상황이 어떠한가? 그런가! 五臟의 柔邪와 六腑의 剛邪가 臟腑間에 서로 영향을 주어 傳變되는 것이다. 가령 心脈이 急甚하면 肝邪가 心을, 心脈이 微急하면 膽邪가 小腸을, 心脈이 大甚하면 心邪가 그 自體의 心을, 心脈이 微大하면 小腸邪가 그 自體의 小腸을,

心脈이 緩甚하면 脾邪가 心을, 心脈이 微緩하면 胃邪가 小腸을, 心脈이 瀦甚하면 肺邪가 心을, 心脈이 微瀦하면 大腸邪가 小腸을, 心脈이 沈甚하면 腎邪가 心을, 心脈이 微沈하면 膀胱邪가 小腸을 침범한 것이니, 五臟에 각각 臟의 柔邪와 腑의 剛邪가 影響을 주므로 한 脈에 곧 10가지 變態가 생기는 것이다.(一脈爲十變者 何謂也 然 五邪 剛柔相逢之意也 假令心脈 急甚者 肝邪干心也 心脈微急者 膽邪干小腸也 心脈大甚者 心邪自干心也 心脈微大者 小腸邪自干小腸也 心脈緩甚者 脾邪干心也 心脈微緩者 胃邪干小腸也 心脈瀦甚者 肺邪干心也 心脈微瀦者 大腸邪干小腸也 心脈沈甚者 腎邪干心也 心脈微沈者 膀胱邪干小腸也 五藏 各有 剛柔邪 故 令一脈 輒變爲十也)”고 하여 一脈十變을 論하였다.

本節에서는 註釋家들이 病症이 생기는 原因을 크게 外邪로 본 경우와 藏府사이의 傳變관계로 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藏府사이의 傳變關係로 본 경우는 緩을 脾의 本脈으로, 急을 肝의 本脈으로, 大를 心의 本脈으로, 滑을 腎의 本脈으로, 瀦을 肺의 本脈으로 보고, 小는 《醫學入門》 細脈條에 “沈細而滑은 腎의 本脈이다(冬脈宜沈細而滑).”라고 하였으므로 腎의 本脈으로 봐서 藏府사이의 勝克관계로 說明하였다. 이 節을 根據하여 《難經·十難》으로 발전하였으나 《難經》에는 病症이 없으므로 本節과 비교 연구하면 完전한 診法이 될것으로 思料된다.

本文의 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丑3〉 五臟六脈微甚病形

	心	肺	肝	脾	腎
急甚	癰瘕	癲疾	惡言	癰瘕	骨癲疾
微急	心痛引背,食不下	肺寒熱,怠惰,咳唾血引腰背胸,鼻息肉不通	肥氣在脇下若覆杯	膈中,食飲入而還出後沃沫	沈厥,奔豚,足不收不得前後
緩甚	狂笑	多汗	善嘔	痿厥	折脊
微緩	伏梁,在心下上下行時唾血	痿,癱,偏風,頭以下汗出不可止	水瘕痺	風痿,四肢不用心慧然若無病	洞,食不化,下噎還出
大甚	喉吟	脛腫	內癰,善嘔衄	擊仆	陰痿
微大	心痺,引背,善泪出	肺痺引胸背,起惡日光	肝痺,陰縮咳引小腹	疝氣,腹裏大膿血在腸胃之外	石水,起臍以下,至小腹,腫腫然,上至胃脘死不治
小甚	善噦	泄	多飲	寒熱	洞泄
微小	消痺	消痺	消痺	消痺	消痺
滑甚	善渴	息賁上氣	癢疝	癢癢	癢癢
微滑	心疝,引臍,小腹鳴	上下出血	遺溺	蟲毒,蜻蝎腹熱	骨痿,坐不能起,起則目無所見
濇甚	瘖	嘔血	溢飲	腸瘖	大癰
微濇	血溢,維厥,耳鳴,癲疾	鼠瘻,在支腋之間	癭擊筋痺	內瘖,多下膿血	不月,沈痔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請하여 묻건대 脈의 緩·急·小·大·滑·濇의 病形이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臣이 五臟의 病變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心脈이 急甚하면 癰瘕症이 되고, 微急하면 心痛이 背脊으로 땅기고 飲食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緩甚하면 미친듯이 웃고, 微緩하면 伏梁이 心下에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때로 唾血합니다.

大甚하면 목에 무언가 걸린듯 하고, 微大하면 心痺로 背部가 땅기고 눈물을 잘 흘립니다.

小甚하면 딸꾹질을 잘하고, 微小하면 消痺病이 됩니다.

滑甚하면 입이 잘 마르고, 微滑하면 心疝으로 臍部가 땅기고 小腹部에 소리가 납니다.

濇甚하면 말을 못하고, 微濇하면 血溢과 維厥과 耳鳴과 癲疾이 발생합니다.

肺脈이 急甚하면 癲疾이 되고, 微急하면 肺寒熱하고 倦怠無力하고 咳血과 唾血이 발생하고 腰背胸部가 땅기며 아프고 코에 癰肉이 있어서 通하지 않게 됩니다.

緩甚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微緩하면 痿·癱·偏風症이 되고 머리 以下の 땀이 그치지 않습니다.

大甚하면 정강이가 붓고, 微大하면 肺痺가 되며 胸背가 땅기고 햇빛을 싫어합니다.

小甚하면 泄瀉를 하고, 微小하면 消痺病이 됩니다.

滑甚하면 息賁症이 되어 上氣가 되고, 微滑하면 上下로 出血하게 됩니다.

瀼甚하면 血을 吐하고, 微瀼하면 鼠瘻가 목과 겨드랑이 사이에 생기고 下肢가 上肢를 이기지 못하여 痠痛이 잘 발생합니다.

肝脈이 急甚하면 惡言하고, 微急하면 肥氣가 脇下에 있어서 마치 잔을 엮어놓은것 같습니다.

緩甚하면 嘔吐을 잘 하고, 微緩하면 水瘕痺症이 됩니다.

大甚하면 內癰이 되고 嘔吐와 코피를 잘 흘리고, 微大하면 肝痺症이 되고 陰囊이 收縮되고 기침을 하면 小腹이 땅깁니다.

小甚하면 물을 많이 마시고, 微小하면 消癰病이 됩니다.

滑甚하면 癢疝症이 되고, 微滑하면 遺溺症이 됩니다.

瀼甚하면 溢飲이 되고, 微瀼하면 筋脈이 緊急하고 拘攣하며 筋痺가 됩니다.

脾脈이 急甚하면 癰瘕症이 되고, 微急하면 膈中으로 음식을 먹으면 다시 吐出하며 涎沫을 吐합니다.

緩甚하면 痿癱症이 발생하고, 微緩하면 風痿로 四肢를 쓰지 못하나 精神은 明了하여 病이 없는것 같습니다.

大甚하면 마치 무엇에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微大하면 疝氣가 되니 腹部가 脹大하고 膿血은 腸胃의 바깥에 있게 됩니다.

小甚하면 寒熱이 往來하고, 微小하면 消癰病이 됩니다.

滑甚하면 癢癰症이 발생하고, 微滑하면 各種의 蟲과 蝨, 蝎의 病이 되며 腹部에 熱이 납니다.

瀼甚하면 腸潰症이 되고, 微瀼하면 內癢症이 발생하여 많은 膿血을 排泄합니다.

腎脈이 急甚하면 骨癱疾이 되고, 微急하

면 沈厥이 되고 奔豚이 되며 다리를 屈身하지 못하며 大小便이 通하지 않게 됩니다.

緩甚하면 脊背가 彎曲되고, 微緩하면 洞이 되니 洞은 飲食이 소화되지 않아 飲食이 목구멍을 넘어가면 바로 排出됩니다.

大甚하면 陰痿症이 되고, 微大하면 石水症이 되니 배꼽아래에서 發生하여 小腹에 이르러서 아래로 축 처지며 위로 胃脘에 이르면 死證으로 治療하지 못합니다.

小甚하면 洞泄症이 되고, 微小하면 消癰病이 됩니다.

滑甚하면 癰瘕症이 되고, 微滑하면 骨痿가 되어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瀼甚하면 大癰이 되고, 微瀼하면 月經이 나오지 않거나 沈痔症이 됩니다.

### 第三章 藏府病形の 刺法

#### 第一節 六臟의 主病과 刺針方法

##### 【原文】

黃帝曰 病之六變者<sup>1)</sup>를 刺之는 奈何

岐伯이 曰 諸急者는 多寒<sup>[1]</sup> 하며 緩者는 多熱<sup>[2]</sup> 하며 大者는 多氣少血<sup>[3]</sup> 하며 小者는 血氣皆少<sup>[4]</sup> 하며 滑者는 陽氣盛하고 微有熱<sup>[5]</sup> 하며 瀼者는 多血<sup>[3]</sup>少氣하고 微有寒<sup>[6]</sup> 이라 是故로 刺急者는 深內<sup>[1]</sup>而久留之<sup>[7]</sup> 요 刺緩者는 淺內而疾<sup>[2]</sup>發鍼하야 以去其熱<sup>[5]</sup><sup>[8]</sup> 이요 刺大者는 微寫<sup>[3]</sup>其氣호대 無出其血<sup>[6]</sup><sup>[9]</sup> 이요 刺滑者는 疾發鍼而淺內之<sup>[7]</sup>하야 以寫其陽氣而去其熱<sup>[10]</sup> 이요 刺瀼者는 必中<sup>[4]</sup>其脈<sup>[8]</sup>하야 隨<sup>[5]</sup>其逆順而久留之<sup>[9]</sup> 하고 必先按而循之<sup>[10]</sup>하고 已發鍼<sup>[11]</sup>에 疾按其病<sup>[6]</sup>하야 無令其血出<sup>[12]</sup>하야 以和其脈<sup>[13]</sup><sup>[11]</sup> 이요 諸小者<sup>[4]</sup>는 陰陽形氣俱不足하니

勿取以鍼而調以甘藥也<sup>15)</sup> [12] 니이다

【校勘】

- 1) 病之六變者: 《甲乙》卷第二下에는 ‘病亦有甚變者’로 되어 있다.
- 2) 微有熱: 《甲乙》卷第四二下에는 ‘而微有熱’로 되어 있다.
- 3) 微有寒: 《甲乙》卷第四二下에는 ‘而微有寒’로 되어 있다.
- 4) 多血: 《景岳全書》卷四에 “多血二字는 傳寫과정의 誤記이니, 本篇의 下文에서 말한 ‘刺澁者無令其血出, 其爲少血’를 보면 알 수 있다. 仲景이 말하기를, 澁脈은 營氣가 不足한 것이고 또한 少血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以去其熱: 《太素》卷十五「五臟脈診」에는 ‘以其熱’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九에는 ‘以去其熱’ 4자가 없다.
- 6) 微瀉其氣 無出其血: 《千金》卷二十九에는 ‘微出其血’로 되어 있다.
- 7) 疾發針而淺內之: 《千金》卷二十九에는 ‘疾發針淺內而久留之’로 되어 있다.
- 8) 必中其脈: 《千金》卷二十九에는 ‘必得其脈’으로 되어 있다.
- 9) 隨氣逆順而久留之: 《千金》卷二十九에는 ‘隨氣逆順久留之’로 되어 있다.
- 10) 必先按而循之: 《太素》卷十五「五臟脈診」에는 ‘必先捫而循之’로 되어 있다.
- 11) 已發鍼: 《太素》卷十五「五臟脈診」에는 ‘以發鍼’으로 되어 있다.
- 12) 無令其血出: 《語譯》에 “其字는 衍文이다.”라고 하였고, 《甲乙》卷四第二下에는 ‘無令出血’로 되어 있다.
- 13) 以和其脈: 《甲乙》卷四第二下에는 ‘以和其諸脈’로 되어 있다.
- 14) 諸小者: 《千金》第二十九에는 ‘諸小弱

者’로 되어 있다.

- 15) 而調以甘藥也: 《太素》卷十五「五臟脈診」에는 ‘調其甘藥’으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九에는 ‘而調以百藥也’으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澁者 多血少氣’에서 ‘多血’에 대하여 張景岳은 그의 著書 《脈神章》에서 “多血’ 2字는 傳寫과정의 誤記이다. 本篇의 아래 문장의 ‘刺澁者無令其血出, 其爲少血’를 봐도 알 수 있고, 또 仲景이 ‘澁脈은 營氣가 不足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少血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澁脈은 精陰이 傷하였거나 敗血이 형성된 것이고(澁則傷精 陰敗血), 澁脈은 精血의 損傷으로 인한 不足症이다.(澁爲不足傷精血)”고 하였고, 『瀕湖脈學』에 “澁脈은 血液이 적거나 精이 傷한 病症을 주재한다.(澁主血少精傷之病)”고 하였으며, 또한 臨床실제에 있어서도 澁脈은 精血이 마르거나 瘀血이 있을 때 나타나는 脈이다. 그러므로 ‘多血’은 ‘少血’로 고쳐야 한다.

[較註에 대한 考察]

‘緩者多熱’에서 ‘緩脈’에 대하여

楊은 ‘遲緩’이라 하고, 景岳은 “縱緩의 脈狀이고, 後世의 遲緩의 脈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늘여지는 脈象은 脾胃로 부터 氣化된 中焦의 熱을 반영하는 脈象이다.”라고 하였다. 景岳은 그의 著書 『脈神章』에서 “緩하면서 滑大하면 대개 實熱이고, 緩하면서 遲細하면 대개 虛寒症이다. 그러나 實熱이 있으면 반드시 緩大하면서 힘이 있다.”

고 하였으니, 여기서 緩脈은 熱症을 주재하므로 緩하면서 힘이 있는 脈으로 봐야 옳다.

‘刺瀉者 必中其脈 隨其逆順而久留之 必先按而循之 已發鍼 疾按其痛 無令其出血 以和其脈’에 대하여

楊은 瀉脈은 多血少氣를 주재하므로 오랫동안 留鍼하면 그 氣가 적어서 泄氣될까 두려우므로 빨리 拔針하고 그 針空을 누른다고 하였고, 景岳 등은 瀉脈은 氣血이 모두 적어 得氣하기 어려우므로 오래 留鍼하고 빨리 針空을 눌러서 血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미 校勘에서 考察한 것과 같이 瀉脈은 少血을 주재하기 때문에 出血시키면 瀉되므로 景岳 등의 見解라야 前後文章의 意味가 부합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病症의 六變을 刺鍼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모든 急한 脈은 寒이 많고, 緩한 脈은 熱이 많으며, 大한 脈은 氣는 많고 血이 적고, 小한 脈은 血과 氣가 모두 적은 것이며, 滑한 脈은 陽氣가 盛하여 약간 熱이 있는 것이고, 瀉한 脈은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약간 寒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急脈을 刺鍼할 때에는 깊이 刺하여 오랫동안 留針하고, 緩脈을 刺鍼할 때에는 얇게 刺鍼하고 빨리 拔針하여 그 熱을 제거하며, 大脈을 刺鍼할 때는 그 氣를 조금 瀉하여 그 血을 放出시키지 말고, 滑脈을 刺鍼할 때는 빨리 針을 뽑고 얇게 刺鍼하여 그 陽氣를 瀉하고 그 熱을 제거시키며, 瀉脈을 刺鍼할 때는 반드시 그 經脈에 的中하게 하여 그 氣가 流行하는 逆·

順의 방향을 따라 刺針하고 아울러 오랫동안 留針하고 반드시 먼저 그 經脈의 순행 방향을 따라 문지르며 이미 拔針을 하고 난 뒤에는 빨리 針孔을 눌러서 血이 放出되지 않게 하여 이로써 그 經脈을 調和시키고, 모든 小脈은 陰陽形氣가 不足하니 針으로써 取하지 말고 甘味의 藥으로 調治하여야 합니다.

第二節 六府下合穴

【原文】

黃帝曰 余聞五藏<sup>1)</sup>六府之氣 榮<sup>1)</sup>輸<sup>2)</sup>所入爲合<sup>3)</sup>이라하니 尋<sup>3)</sup>何道從<sup>4)</sup>入이며 入安<sup>5)</sup>連過<sup>4)</sup>오 願聞其故하노이다

岐伯이 答曰 此陽脈<sup>5)</sup>之別<sup>6)</sup>은 入于內하야 屬於府者也<sup>1)</sup> 니이다

黃帝曰 榮輸與合은 各有名<sup>7)</sup>乎잇가

岐伯이 曰榮輸는 治外經<sup>6)</sup>하고 合은 治內府<sup>2)</sup> 하나이다

黃帝曰 治內府는 奈何오

岐伯이 曰取之于合이니이다

黃帝曰 合은 各有名乎잇가

岐伯이 曰胃合于三里<sup>7)</sup><sup>3)</sup> 하고 大腸合入于巨虛上廉<sup>8)</sup><sup>4)</sup> 하고 小腸合入于巨虛下廉<sup>5)</sup> 하고 三焦合入于委陽<sup>6)</sup> 하고 膀胱合入于委中央<sup>8)</sup><sup>7)</sup> 하고 膽合入于陽陵泉<sup>8)</sup> 하나이다

黃帝曰 取之는 奈何오

岐伯이 答曰取之三里者는 低<sup>9)</sup>跗<sup>10)</sup>取之하고 巨虛者는 舉<sup>11)</sup>足取之하고 委陽者는 屈伸而索<sup>12)</sup>之<sup>9)</sup><sup>9)</sup> 하고 委中者는 屈而取之<sup>10)</sup>하고 陽陵泉者는 正豎<sup>13)</sup>膝予<sup>14)</sup>之齊하야 下<sup>11)</sup>至委陽<sup>12)</sup>之陽에 取之<sup>10)</sup> 하고 取諸外經者<sup>13)</sup>는 臑<sup>15)</sup>申<sup>16)</sup>而從之<sup>14)</sup><sup>11)</sup> 하노이다

【校勘】

- 1) 五藏: 《語譯》에 孫鼎宜의 말을 引用하여 “五臟 2字는 衍文이다.”고 하였다.
- 2) 榮輸: 《語譯》에 孫鼎宜의 말을 引用하여 “榮輸 2字는 下文을 引用한 衍文이다.”고 하였다.
- 3) 令何道從入: 《太素》卷十一「府病合輸」에는 ‘今何道從入’으로 되어 있다.
- 4) 入安連過: 《甲乙》卷四第二下에는 ‘入安從道’로 되어 있다.
- 5) 陽脈: 《甲乙》卷四第二下에는 ‘陽明’으로 되어 있다.
- 6) 治外經: 《甲乙》卷四第二下에는 ‘治外藏’으로 되어 있다.
- 7) 胃合於三里: 《太素》卷十一「府病合輸」와 《甲乙》卷四第二下에는 모두 ‘胃合入於三里’로 되어 있다.
- 8) 委中央: 《太素》卷十一「府病合輸」에는 ‘委中’으로 되어 있다.
- 9) 屈伸而索之: 『甲乙』卷四第二下에는 ‘屈伸而取之’로 되어 있다.
- 10) 屈而取之: 《甲乙》卷四第二下에는 ‘屈膝而取之’로 되어 있다.
- 11) 正豎膝予之齊下: 《太素》卷十一「府病合輸」와 《甲乙》卷四第二下에는 모두 ‘正立豎膝予之齊下’로 되어 있다.
- 12) 委陽: 張介賓이 말하기를 “委陽은 마당히 委中으로 고쳐야 한다. 대개 委中穴의 外廉은 바로 陽陵泉이다.”라고 하였다.
- 13) 取諸外經者: 《甲乙》卷四第二下에는 ‘諸外經者’로 되어 있다.
- 14) 揄申而從之: 《太素》卷十一「府病合輸」에는 ‘揄伸而從之’로, 《甲乙》卷四第二下에는 ‘揄申而取之’로, 《類經》卷二十「六府之病取之於合」에는 ‘揄申而

從之’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委陽之陽’에 대하여 景岳은 “委中之陽으로 고쳐야 하고, 委中穴의 바깥 모서리는 陽陵泉穴이다.”고 하였다. 經穴을 말할때 陽은 外側이고 陰이 內側을 의미하는데 委陽穴은 委中穴의 바깥에 있고 陽陵泉穴이 委陽穴의 바깥에 있어서 委陽穴의 外側에 陽陵泉穴이 있게 되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건데 五藏六府의 氣는 榮輸를 따라서 進入하여 合穴에 이른다고 하니 어떤 길을 따라서 進入하고 進入하여서는 어디와 連結되고 어디를 通過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러한 陽經의 別絡은 안으로 들어가서 府에 屬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榮輸·슴은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榮輸는 外經를 治療하고 슴은 內府를 治療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內府는 어떻게 治療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合穴을 取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合穴에는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胃의 合穴은 三里에 있고, 大腸의 合穴은 巨虛上廉으로, 小腸의 合穴은 巨虛下廉으로, 三焦의 合穴은 委陽으로, 膀胱의 合穴은 委中으로, 膽의 合穴은 陽陵泉으로 進入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取穴은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三里를 取穴할 때는 발등을 구부려서 取穴하고,巨虛는 발를 들어서 取穴하며,委陽은 구부리고 펴서 찾고,委中은 구부려서 取穴하고,陽陵泉은 양무릎을 가지런히 바르게 세워서 아래로 委陽穴의 바깥에서 取穴하고, 모든 外經을 取할때는 구부리고 펴서 위의 取穴法을 따릅니다.

### 第三節 六府病形과 取穴

#### 【原文】

黃帝曰 願聞六府之病하노이다

岐伯이 答曰 面熱者는 足陽明病이요 魚絡<sup>(1)</sup>血者는 手陽明病이요 兩附之上脈豎<sup>(2)</sup>陷者<sup>1)</sup>는 足陽明病이니 此는 胃脈也<sup>(1)</sup> 라

大腸病者는 腸中切痛 而鳴濯濯<sup>2)(3)</sup>하고 冬日重感于寒即泄<sup>3)</sup>하고 當臍而痛하고 不能久立하야 與胃로 同候니 取巨虛上廉<sup>(2)</sup> 이라

胃病者는 腹脹<sup>(4)</sup>脹<sup>4)</sup>하고 胃脘當心而痛하야 上<sup>(5)</sup>肢兩脅하고 膈咽不通<sup>5)</sup>하야 食飲不下하니 取之三里也<sup>(6)</sup> <sup>(3)</sup> 라

小腸病者는 小腹痛하고 腰脊控<sup>(6)</sup>牽而痛<sup>(7)</sup>하고 時寤<sup>(7)</sup>之後<sup>8)</sup>하며 當<sup>9)</sup>耳前熱 若寒甚커나 若獨肩上熱甚<sup>10)</sup>하고 及手小指次指之間<sup>(11)</sup>熱커나 若脈陷<sup>(12)</sup>者 此其候也며 手太陽病也<sup>(13)</sup>니 取之巨虛下廉<sup>(4)</sup> 이라

三焦病者는 腹<sup>(14)</sup>氣滿호대 小腹尤<sup>(8)</sup>堅하고 不得小便寤急하며 溢則<sup>(15)</sup>水留하니 卽爲脹이라 候在足太陽之外大絡<sup>(16)</sup>하니 大絡은 在太陽少陽之間이요 亦<sup>(17)</sup>見于脈이면 取委陽<sup>(18)</sup> <sup>(5)</sup> 이라

膀胱病者는 小腹<sup>(19)</sup>偏腫而<sup>(20)</sup>痛하야 以手按之 卽欲小便而不得하고 肩<sup>(21)</sup>上熱커나 若脈陷하고 及足小指外廉 及脛踝後皆熱<sup>(22)</sup>커나

若脈陷<sup>(23)</sup>하면 取委中央<sup>(24)</sup> <sup>(6)</sup> 이라

膽病者는 善太息하고 口苦하고 嘔宿汁<sup>(26)</sup>하고 心下<sup>(27)</sup>澹澹<sup>(9)</sup>하고 恐<sup>(28)</sup>人將捕<sup>(10)</sup>之하고 噎中<sup>(11)</sup>哕<sup>(11)</sup>然數唾<sup>(29)</sup>하니 在<sup>(30)</sup>足少陽之本末에 亦視其脈之陷下者는 灸之하고 其寒熱者<sup>(31)</sup>는 取<sup>(32)</sup>陽陵泉<sup>(7)</sup> 이니이다

#### 【校勘】

- 1) 脈堅陷者: 《合註》에는 ‘脈堅陷者’로, 《太素》卷十一 「府病合輸」와 《甲乙》卷四第二下에는 모두 ‘脈堅若陷者’로 되어 있다.
- 2) 腸中切痛而鳴濯濯: 《聖濟總錄》卷一百三十一에는 ‘腹中痛濯濯’으로 되어 있다.
- 3) 卽泄: 《甲乙》卷九第七에는 이 2자가 없다
- 4) 腹脹脹: 《脈經》卷六第六에는 ‘腹脹’으로 되어 있다.
- 5) 上肢兩脇 膈咽不通: 《千金》卷十六에는 ‘上支兩脇 膈咽不通’으로, 《太素》卷十一 「府病合輸」에는 ‘上交兩脇 膈咽不通’으로, 《綱目》卷七에는 ‘上支兩脇 膈噎不通’으로 되어 있다.
- 6) 取之三里也: 《千金》卷十六第一에는 ‘下取之三里也’로 되어 있다.
- 7) 腰脊控牽而痛: 《太素》卷十一 「府病合輸」에는 ‘腰脊控尻而痛’로 되어 있다.
- 8) 時寤之後: 《脈經》卷六第四와 《千金》卷十四第一에는 모두 ‘時寤之腹’으로 되어 있다.
- 9) 當耳前熱: 《脈經》卷六第四, 《千金》卷十四第一, 《甲乙》卷四第二下, 《普濟方》卷四十二에는 모두 ‘耳前熱’로 되어 있다.
- 10) 若獨肩上熱甚: 《太素》卷十一 「府病合



- 輸」에는 ‘若獨眉上熱甚’으로 되어 있다. 《脈經》卷六第四, 《千金》卷十四第一에는 ‘獨眉上熱’으로 되어 있다.
- 11) 次指之間: 《甲乙》卷九第八에는 ‘次指間’으로 되어 있다.
- 12) 若脈陷者: 《千金》卷十四第一에는 ‘若脈滑者’로 되어 있다.
- 13) 手太陽病也: 《太素》卷十一「府病合輸」에는 ‘手太陽也’로 되어 있다. 《脈經》卷六第四와 《甲乙》卷四第二下에는 이 5자가 없다.
- 14) 腹氣滿: 《脈經》卷六第十一, 《甲乙》卷九第九, 《千金》第二十第四에는 ‘腹脹氣滿’으로 되어 있다.
- 15) 則水留: 《太素》卷十一「府病合輸」, 《脈經》卷六第十一, 《甲乙》卷九第九, 《千金》第二十第四에는 ‘則爲水留’로 되어 있다.
- 16) 大絡: 《太素》卷十一「府病合輸篇」과 《甲乙》卷九第九에는 ‘絡’으로 되어 있다. 《脈經》卷六第十一과 《千金》卷二十第四에는 2자가 없다.
- 17) 亦見于脈: 《脈經》卷六第十一에는 ‘赤見于脈’으로 되어 있다.
- 18) 委陽: 《甲乙》卷九第九에는 ‘委中’으로 되어 있다.
- 19) 小腹: 《太素》卷十一「府病合輸」와 《脈經》卷六第十에는 모두 ‘少腹’으로 되어 있다. 《類經》卷二十第十四에는 ‘小便’으로 되어 있다.
- 20) 而: 《病源》卷十五「膀胱病候」에는 없다.
- 21) 眉上熱: 《甲乙》卷九第九에는 ‘眉上熱’로 되어 있다.
- 22) 及足小指外廉及脛踝後皆熱: 《太素》卷十一「府病合輸」, 《甲乙》卷九第九, 《千金》第二十第一에는 모두 ‘及足小指外側及脛踝後皆熱’로 되어 있다. 《脈經》卷六第十에는 ‘足小指外廉反脛踝後皆熱’로 되어 있다.
- 23) 若脈陷: 《甲乙》卷九第九에 “이 3字는 衍文이다.”라고 하였다..
- 24) 委中央: 《脈經》卷六第十, 《甲乙》卷九第九, 《千金》第二十第一에는 “‘央’字는 衍文이다.”라고 하였다.
- 25) 嘔宿汁: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는 ‘嘔清汁’으로 되어 있고, 《甲乙》卷九第五에는 ‘嘔宿水’로 되어 있다.
- 26) 心下: 《脈經》卷六第二, 《千金》卷十二第一에는 ‘心’으로 되어 있고, 《中藏經》卷上第二十六, 《針灸問對》卷上에는 모두 ‘心中’으로 되어 있다.
- 27) 恐: 《甲乙》卷九第五, 《太素》卷十一「府病合輸」, 《脈經》卷六第二, 《千金》卷十二第一, 《中藏經》卷上第二十六에도 ‘善恐如’로 되어 있다. 《病源》卷十五「膽病候」에는 ‘如’로 되어 있다.
- 28) 噎中哕然 數唾: 《千金》卷十二第二에는 ‘咽中哕然 數唾’로 되어 있다. 《脈經》卷六第二에는 ‘噎中介介然 數唾’로 되어 있고, 《病源》卷十五「膽病候」에는 ‘噎中介介 數唾’로 되어 있으며, 《醫心方》卷二에도 같다. 《甲乙》卷九第九에는 ‘噎中介介然 數咳唾’로 되어 있다.
- 29) 在: 《太素》卷十一「府病合輸」, 《脈經》卷六第二, 《甲乙》卷九第五, 《千金》卷十二第一에는 모두 ‘候在’로 되어 있다.
- 30) 其寒熱者: 《脈經》卷六第二, 《千金》卷十二第一에는 ‘其寒熱’로 되어 있다.
- 31) 取: 《脈經》卷六第二, 《千金》卷十二

第一에는 모두 ‘刺’로 되어 있고, 《太素》卷十一 ‘府病合輸」에는 ‘取之’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飲食不下’에서 ‘肢’는 《千金》과 《綱目》에는 ‘支’로 되어 있다. ‘肢’로 본다면 文章의 懸吐도 ‘胃脘當心而痛하고 上肢兩脇과 膈咽不通하야 飲食不下하니’로 되어 “胃脘에서 心까지 疼痛이 오고 上肢兩脇과 膈咽이 通하지 못하여 飲食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解析되어 의미가 맞지 않고, 뻘친다는 의미의 ‘支’로 보면 懸吐도 ‘胃脘當心而痛이 上支兩脇하고 膈咽不通하야 飲食不下하니’로 되어 “胃脘에서 心까지 疼痛이 와서 兩脇部까지 뻘치고 膈咽이 通하지 못하여 飲食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解析되어 文意에 적합하고, 또한 임상실제에 있어서도 胃가 無力하면 心下에서 胸膈과 咽喉까지 그득한 느낌이 들고 심하면 兩脇部까지 뻘근하므로 ‘支’가 맞다.

‘亦見于脈’은 《脈經》에는 ‘赤見于脈’으로 되어 있다.

만약 ‘赤見于脈’으로 본다면 三焦經의 循行經路에 赤色이 나타나는 것은 病이 된다고 解析되어 意味는 通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文章에서도 經脈의 색깔變化를 論한 處가 없고 또한 ‘赤見于脈’이라고 赤色을 제외한 다른 것은 病이 되지 않으므로 이치상 옳지 않으니 ‘亦見于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委中央’에서 ‘央’이 《脈經》, 《甲乙》, 《千金》에는 “‘央’字는 衍文이다.”고 하였고, 《語譯》에 “《脈經》, 《甲乙》, 《千金》에 根據

하여 ‘央’字를 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足太陽膀胱經의 下脘穴은 委中穴이기 때문에 ‘央’字를 빼는 것이 옳다.

〔較註에 대한 考察〕

‘大腸病者 腸中切痛 而鳴濯濯 冬日重感於寒即泄 當臍而痛 不能久立 與胃 同候 取巨虛上廉’에서 ‘不能久立’의 原因에 대하여

楊등은 泄瀉를 하면 배꼽주위에 疼痛이 發生하고 그 痛症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章은 일어나면 氣가 下陷되어 泄瀉를 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寒泄의 症狀은 배가 끊어지듯이 아프기 때문에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되고, 또한 手陽明經과 足陽明經은 表裏가 되어 手陽明經이 病들면 下肢로 循行하는 足陽明經이 病들어서 오래 서있지 못하게 된다.

‘小腸病者 小腹痛 腰脊控牽而痛 時窘之後 當耳前熱 若寒甚 若獨肩上熱甚 及手小指次指之間熱 若脈陷者 此其候也 手太陽病也 取之巨虛下廉’에서 ‘時窘之後’에 대하여

楊 등은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章은 大便이 堅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時窘之後는 小便을 보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보지 못하여 急하고, 大便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가면 나오지 않고 뒤가 무지룩한 느낌이고, 또한 임상실제에 있어서도 心移熱於小腸하여 小腸이 病들면 小腸의 泌別清濁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게 되니 이때에는 分心氣飮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時窘之後’를 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解析하는 것이 옳다.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 溢則水留 卽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於脈 取委陽'에서 '亦見於脈'에 대하여

馬는 脈이 반드시 下陷한다고 하고, 張은 脈이 皮部에 나타난다고 하며, 校釋과 語譯에서는 經脈에 赤色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經脈에 病이 있으면 해당 經脈이 下陷하든지 色의 變化가 있든지 經脈에 어떤 一定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본 白話解의 見解가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噎中吟呷然數唾 在足少陽之本末亦視其脈之陷下者 灸之 其寒熱者 取陽陵泉'에서 '心下澹澹'에 대하여

楊등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보았고, 景岳은 의욕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丹波는 "상고하건대 澹은 擔과 같으니, 集韻에 動이라 하였고 《靈樞·經脈》에 "心主之脈 是動則心中澹澹大動"이라 하고 또한 《素問·至眞要大論》에 "太陽司天에 寒淫所勝 則心澹澹大動"이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跳動하는 모양이다. 景岳이 澹澹은 의욕이 없는 것이라고 한 註釋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본 文章을 보면 '心下澹澹'이 뒤에 '恐人將捕之'와 이어져서 누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면 당연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解析하는 것이 文意에 적합하므로, 丹波의 見解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解析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六府의 病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얼굴에 熱이 나는 것은 足陽明病이고, 魚絡의 充血은 手陽明病이고, 양쪽 발등의 脈이 단단해 지거나 陷

沒되면 足陽明病이니 이는 胃脈입니다.

大腸病은 腸이 끊어질듯이 아프고 소리가 나며, 겨울에 재차 寒氣에 感觸되면 泄瀉를 하고 바로 배꼽부위가 아프며 오랫동안 서있지 못하여 胃病의 증후와 같고 巨虛上廉穴에 刺針합니다.

胃病은 腹部가 膨脹하고 胃脘에서 心下까지 疼痛이 와서 兩脇部까지 뻗어서 이르고 胸膈과 咽喉가 통하지 않아 食飲이 내려가지 않으니 足三里穴를 刺針합니다.

小腸病은 小腹이 아프고 腰脊과 鞏丸이 땡기면서 아프고 大小便을 보고자 하는 욕망은 급하나 잘 나오지 않으며 바로 귀의 앞부분이 熱이 나거나 혹은 惡寒이甚하고 유독 어깨위만 熱이甚하고 手小指와 次指 사이에 熱이 납니다. 만약 脈이 陷沒된 것은 그 징후이며 手太陽病이니 巨虛下廉穴을 刺針합니다.

三焦病은 腹部가 脹滿한데 小腹은 더욱 단단하고 小便을 보고자 하는 욕망은 급하며 넘치면 水氣가 머무니 곧 脹病이 됩니다. 징후는 足太陽經의 바깥인 大絡에 있으니 大絡은 太陽과 少陽의 사이에 있다. 또한 血脈에 나타나면 委陽穴을 刺針합니다.

膀胱病은 小腹이 한쪽으로 붓고 아파서 손으로 누르면 곧 小便을 보고 싶으나 불수가 없고 어깨위에 熱이 나거나 혹은 脈이 함몰되고 足小趾의 바깥쪽 모서리와 바깥복사뼈뒤가 모두 熱이 나거나 만약 脈이 陷沒되면 委中穴을 刺針합니다.

膽病은 한숨을 잘 쉬고 입이 쓰고 宿汁을 토하고 가슴이 뛰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두려워 하고 목안이 걸린 듯한 감각이 생겨서 자주 침을 뱉으니 足少陽膽經의 本末에 있어서 역시 그 經脈이 陷沒되면 땀을 뜨고 寒熱往來가 있으면 陽陵泉

穴을 刺針합니다.

#### 第四節 刺法の 總結

##### 【原文】

黃帝曰 刺之有道乎잇가

岐伯이 答曰 刺此者<sup>1)</sup>는 必中氣穴<sup>(1)</sup>이요 無中肉節<sup>2)(2)</sup>이니 中氣穴 則鍼染<sup>(3)</sup>于巷<sup>3)(4)</sup>하고 中肉節 卽皮膚痛<sup>4)</sup> <sup>(1)</sup>이라

補瀉反 則病益篤<sup>(5)</sup>하니 中筋則筋緩하야 邪氣不出하야 與其真相搏<sup>(6)</sup>하야 亂而不去<sup>5)</sup>하야 反還內著<sup>6)(7)</sup>이라 用鍼不審이면 以順爲逆也 <sup>(2)</sup> 니이다

##### 【校勘】

- 1) 無中肉節: 《太素》 卷十一 「府病合輸」에는 ‘毋中肉節’로 되어 있다.
- 2) 刺此者: 《甲乙》 卷五 第一에는 ‘凡刺之道’로 되어 있다.
- 3) 鍼染于巷: 《太素》 卷十一 「府病合輸」와 《甲乙》 卷五第一과 《甲乙》에는 ‘鍼染于巷’으로, 《類經》 卷二十 「針刺類」와 《語譯》과 《校釋》에는 ‘鍼游于巷’으로 되어 있다.
- 4) 卽皮膚痛: 《合註》에는 ‘則皮膚痛’로 되어 있고, 《太素》 卷十一 「府病合輸」에는 ‘則肉膚痛’으로 되어 있다.
- 5) 與其真相搏亂而不去: 《語譯》에 “周本에는 ‘與其真相薄亂而不去’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甲乙》 卷五 第一에는 ‘與真相薄亂而不去’로 되어 있으며, 《太素》 卷十一 「府病合輸」에는 ‘與眞氣相薄亂而不去’로 되어 있다.
- 6) 反還內著: 《語譯》에 “‘著’字는 아마도 誤記이니, 楊注에 根據하면 마땅히 ‘病’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 【考察】

[較註에 대한 考察]

‘刺此者 必中氣穴 無中肉節 中氣穴 則鍼染於巷 中肉節 卽皮膚痛’에서 ‘氣穴’에 대하여 楊등은 經氣가 이르는 곳이라고 하였고, 張은 府氣가 注入되는 經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氣穴’은 五臟六腑의 氣가 十二經脈을 通하여 人體의 特정한 部位에 모이는 곳이므로 모든 註釋家의 見解가 차이가 없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刺針하는데 方法이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를 刺針할 때는 반드시 氣穴에 的中케 하고 肉節에는 的中되지 않아야 하니 氣穴에 的中하면 鍼感이 빈거리(巷)에 들어간 것 같고 肉節에 的中하면 皮膚가 아프게 됩니다.

補瀉가 뒤바뀌면 病은 더욱 심해지니 筋에 的中하면 筋이 늘어져서 邪氣가 나가지 못하여 그것이 眞氣와 뒤섞여 紊亂하여 제거되지 못하여 도리어 內部에 유착됩니다. 刺針을 할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順證이 逆證으로 變합니다.

#### V. 結 論

이상과 같이 各家註를 比較·考察하고 譯解한 결과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제 1장에서 邪氣之中人 高也는 ‘邪氣之中人 高下也’로 바꾸는 것이 옳다.

無有常은 문장의 흐름상 ‘無有恒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若飲食汗出은 文章의 의미를 보다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 ‘若熱飲食汗出’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其面不衣 何也는 文章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其面不衣 其故何也'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一節에서 五藏이 손상되는 原因에 대하여 비슷한 말로 《難經·四十九難》에 있으나 『難經』에서 말한 것은 本藏에서 發病한 正經自病이고 本篇에서는 內傷과 外傷을 兼해야만 藏이 傷한다고 하여 原因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되지만 《語譯》과 같이 억지로 《難經》의 글을 끌어서 校勘할 필요는 없다고 思料된다.

제 2장에서 '亦減而少氣'에서 '氣'字는 衍文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若鼻息肉不通'에서 '若'은 괴로워한다는 意味의 '苦'字의 誤字로 보아야 한다.

'腹裏大 膿血在腸胃之外'에서 '腹裏'를 '腹裏'로 바꾸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脾脈急甚 爲癰瘕 微急 爲膈中 食飲入而還出 後沃沫'에서 '後沃沫'은 馬 等이 解析한 다시 입으로 涎沫을 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緩甚 爲折脊 微緩 爲洞 洞者 食不化 下噎逐出'에서 '下噎逐出'은 楊 等이 解析한 飲食이 消化되기 전에 다시 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三節의 六脈의 病形을 根幹으로 하여 《難經·十難》에서는 虛實賊微正의 五邪의 구분을 뚜렷이 하여 病의 傳變을 藏과 藏 府와 府사이의 關係로 說明하였다. 本篇을 根幹으로 하여 《難經·十難》으로 發展하였으나 本篇에서는 病症은 있으나 病의 傳變關係가 一貫性이 없고 《難經》에서는 病症은 없으나 病의 傳變關係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두가지를 같이 比較 研究하면 完전한 診法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제 3장에서 '上肢兩脇 膈咽不通'에서 '肢'는 뻗친다는 意味의 '支'字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委中央'에서 '央'字는 衍文으로 보는 것이 옳다.

本篇을 要約하면 第一章에서는 邪氣가 人體에 侵入할 때에는 邪氣의 性質에 따라 風寒等의 輕淸한 邪氣는 人體의 높은 곳을 侵入하고 重濁한 濕邪는 낮은 곳을 侵入하며, 邪氣가 侵入하는 部位에 따라 陰經에 侵入하면 六府에 發病하고 陽經에 侵入하면 本經上에 發病하며, 內傷과 外傷을 兼해야만 五藏을 傷한다고 하였다. 頭面部가 옷을 입지 않아도 寒邪를 견디는 것은 五藏 六腑의 津液이 모두 얼굴로 熏蒸되고 皮膚가 두텁고 肌肉이 堅實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第二章에서는 診斷의 요체가 되는 顏色·脈象·尺膚를 綜合하여 診斷해야 하는 것과 緩·急·大·小·滑·濇의 六脈을 微·甚으로 나누어서 病形을 論하였다.

第三章에서는 六脈이 주재하는 病이 다르기 때문에 刺針方法도 다르다는 것을 論하였고, 榮輸穴은 經絡의 病을 治療하고 合穴은 內府의 病을 治療한다고 하였고 각각의 取穴方法을 論하였으며, 六府의 病形과 六府가 病들면 六府下合穴을 刺針해야 함을 論하였고, 刺針할 때에는 자세히 살펴서 補瀉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 參 考 文 獻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 楊上善 著·籙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3. 王 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4. 陳夢雷 等,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王馬張合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5.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6. 張介賓, 《類經》, 成輔社, 서울, 1982.
7. 丹派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8. 章 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浙江省, 1986.
9.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0. 陳璧琬·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1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臺北, 1977.
12. 郭靄春, 《黃帝內經靈樞較註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1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5.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16.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17. 皇甫謐·山東中醫學院 校釋,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8. 李元澤·朴京娥, 《醫學神經解剖學》, 高麗醫學, 서울, 1996.
19. 朴 炅, 《入門診斷學譯釋》, 大星文化社, 서울, 1996.
20. 朴 炅, 《國譯瀕湖脈學·四言舉要》, 大星文化社, 서울, 1992.
21. 李 挺,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84.
22. 張 機, 《仲景全書》, 東方書店, 臺北, 1960.
23. 王叔和, 《脈經》, 大孚書局, 臺南, 1985.
24. 林鍾國, 《鍼灸治療學》, 集文堂, 서울, 1983.

### 參 考 辭 典

1.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2.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1975.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7.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 江西技術出版社, 江西, 1987.
8.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10.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93.